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의 녹색날개



GLOBAL & INSIGHT

06



- 06 Pioneers up above 알렉산더 세바스키
- 08 World-Wide Vision Survive and thrive
- 12 Global AF 사상 최대의 공수작전, 베를린 공수작전(Berlin Airlift)
- 16 Leadership+ 정리정돈을 잘하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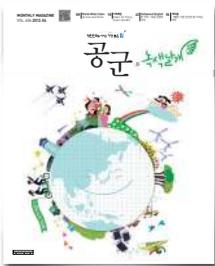
공군IN

18



- 18 기획특집 Green Air Force, Green Growth!
- 30 Photo Sketch Let's go Together To the Victory! Practice Generation
- 34 포토프레임@AF
- 36 AIR FORCE MONTHLY 2012. 04. NEWS
- 38 생각하는 그림 행복이 어디 멀리 있는 줄 아셨소?

COVER STORY



공군의 녹색날개
표지일러스트(앞, 뒤) 김영곤 | 일러스트레이터, 바이일러스트 대표

Notice!

월간 「공군」 5월호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공군,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주제로 글을 공모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응모대상 : 공군인이거나 누구나(예비역 포함)
 응모방법 : A4용지 1장 내외(폰트 10point 크기)로 파일첨부 후 발송, 혹은 월간 「공군」 편집실로 우편접수 보내는 곳 : 인트라넷 - ipod4you@af.mil
 인터넷 - heyclickman@gmail.com
 결과발표 : 월간 「공군」 5월호

선정되신 분들께는 편집실에서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CULTURE 36.5

42



- 42 Hollywood English 존 카터: 바숨 전쟁의 서막
- 44 인생은 아름다워 비밀의 화원 속에 숨겨진 비밀, 〈마슬피리〉
- 46 Art in Everyday 영혼을 위한 처방전
- 48 Air-Supply 연애하는 왕 보셨나요?
- 50 Preview 4월의 문화행사

OPINION

52



- 04 Letters to the Editor 월간 「공군」 2월호를 읽고서
- 52 독자기고 나에게 주어진 위국헌신(爲國獻身)의 길
윗사람을 지혜롭게 모시는 방법
- 54 Health Diary 면역력을 높이는 영양요법
- 56 책마을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착각

MONTHLY MAGAZINE

VOL. 406. 2012. 04

발행일자 2012년 4월 2일(통권 제406호) 발행인 공군참모총장 발행처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02-506-6943, 042-552-6943 편집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대령 최영훈
 기획·편집 소령 조세영, 중위 류재영 디자인·인쇄 국군인쇄창(960-7443~7445, 042-550-7443~7445)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QR 코드 안내

월간 「공군」은 모바일 시대에 발맞춰 독자와 더욱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QR 코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QR 코드를 통해서도 독자의견 및 퀴즈 응모를 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QR 코드는 표지와 57페이지에 있습니다.

월간 「공군」은 바로 **[비밀벤]**이다. 공군을 위한 길라잡이부터 공군력, 문화예술 분야까지 많은 정보와 생각을 '끼리'를 재밌게 주님께 그래서 비밀법 같다고도 생각했다; 대체로 온 색깔과 조화로운 맛의 건강적인 비밀법처럼 공군을 사랑하는 독자들 곁에 오래오래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이번 호에서는 <7월특집> '공군의 교 육정보시스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재밌었습니다; 남녀 주인공의 재밌는 표정과 스토리가 인상 깊더군요!

- 서울 강남구, 김순애

02 월간 「공군」은 **[튼튼한 멧쟁이]**이다. 최첨단 공군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또한 교양을 쌓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문화컬럼과 공군인이라는 자부심을 드높여줄 이야기까지, 우리 공군의 위상을 드높여 줍니다. 이번 호에서는 <World-Wide Vision>의 '열정의 새 버드'가 흥미로웠습니다. 미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생기발랄한 모습들이 흥미를 절로 불러일으키더군요. ^^

- 경기 화성시, 권민성

2월호를 읽고서

L E T T E R S T O T H E E D I T O R

월간 「공군」은 **[앨범]**이다. 좋아하는 가수의 앨범을 기다리듯, 매달 월간 「공군」을 기다리게 됩니다. 앨범 속 노래로 가수와 청자가 공감하듯, 「공군」지의 필자와 독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공감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hollywood English> '혹성탈출 : 진화의 시작'입니다. 재밌게 봤던 영화였는데, 다시 월간 「공군」에서 보게 되니 기분이 새롭더군요.. ^^ 항상 재미있고 즐거운 월간 「공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 충남 서산시, 도경환

04 월간 「공군」은 **[흥기]**이다; 봄의 은은한 꽃향기가 흘러나오듯, 월간 「공군」을 읽을 때마다 기분 좋은 뉘세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월간 「공군」을 볼 때마다 가장 소중하게 다루는 기사는 <생각하는 그림>에 나오는 훌륭한 그림들입니다; 이번 호에도 비버에 관련된 이야기를 읽고 소중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바다 삼아라고 불리는 비버, 땅을 지어 자신의 보금자리를 부지런히 만들듯은 물론, 다른 생물과 사람들에게까지 유익함을 주는 비버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 전남 순천시, 서정란

월간 「공군」은 **[열정]**이다. 실무를 홀로 한다고 들었어요. 매일 편집자분의 열정이 아니라면 월간 「공군」은 제때 나오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정이 아닌가;... 이번 호에서는 <Air Supply>의 '화무산일홍'이라는 기사를 재밌게 읽었습니다; 예전의 영화를 누린 인기가수들의 현재 모습과 전성기 시절을 비교한 기사인데, 참 인생에 대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더군요. 이번 호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전북 전주시, 손정환

06 월간 「공군」은 **[미래]**다. 아직은 열여섯, 올해 종3이 되는 아들이 녀석도 4년 뒤면 진정한 남자가 되기 위해 군대에 가겠지요. 제가 월간 「공군」을 보여주니 "나도 군대 갈 때 공군에 가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월간 「공군」을 통해 공군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다면 그것보다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해요. 공군이 되고 싶은 누군가의 미래, 월간 「공군」이 아마도 함께 하지 않을까요?

- 경남 밀양시, 송나영



Global & Insight

Pioneers up above 알렉산더 세바스키

World-Wide Vision Survive and thrive

Global AF 사상 최대의 공수작전, 베를린 공수작전(Berlin Airlift)

Leadership+ 정리정돈을 잘하는 법



알렉산더 세바스키

Alexander Nikolaievich Prokofiev de Seversky,
(1894.6.7.~1974.8.24)

에이스 전투기 조종사, 전쟁영웅, 항공기설계자, 사업가, 스텐트파일럿, 작가,
그리고 항공력 이론가...

“항공우세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육·해군의 작전은 불가능하다.”

“공군만이 공군을 격멸할 수 있다.”

“공군의 행동반경은 작전지역의 최대범위와 같지 않으면 안 된다.”

러시아 해군의 에이스

알렉산더 세바스키는 러시아 제국 트빌리시의 부유한 귀족집안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러시아 최초의 비행사 중 한 명. 부친의 영향 때문일까. 알렉산더는 10세 때 군사학교에 들어가 14세 때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했으며, 그때 조종술을 부친에게서 배웠다. 1914년 소위로 임관한 알렉산더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구축함을 타게 됐다.

이후, 알렉산더는 세바스토폴에 있는 군 비행학교에 입교, 해군조종사의 길을 걷게 된다. 그는 1915년 대학원을 졸업하고, 다시 발틱 함대 항공대 조종사로 복귀한다. 당시 알렉산더는 리가만(The Gulf of Riga)에서 독일군 폭격에 나섰는데, 미처 폭탄을 투하하기도 전에 대공포에 맞아 격추되고 만다. 이때 알렉산더는 오른쪽 무릎 아래 다리를 잃는다. 이 사고로 알렉산더는 군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항공단 복귀가 불허됐다. 알렉산더는 비행실력으로 이를 극복하려 남몰래 에어

쇼를 하나 비행군기 위반으로 결국 체포된다. 그러나 알렉산더를 안타깝게 여긴 짜르 니콜라스 2세가 선처해, 1916년 7월에야 전투임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알렉산더는 복귀 3일 만에 공중전에서 적기를 격추시켜 녹슬지 않은 실력을 입증했다.

1916년 10월 14일, 알렉산더는 적진에 불시착했지만 스스로 탈출해 안전하게 귀환한다. 그는 57회를 출격해 독일기 13대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했는데, 그중 6대만이 공인되었다. 13회의 공중전 승리는 1차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 조종사들 중 제3위에 해당하는 전과였다. 알렉산더는 해군의 에이스조종사로서 전쟁기간 중 많은 무공훈장을 받았다.

1917년 2월, 알렉산더는 해군2전투단에 배속된다. 그는 거기서 마차사고로 성난 다리 한쪽마저 심하게 부상당할 때까지 지휘관으로 근무한다. 다리 문제로 모스크바 항공교육단 단장에 보임된 알렉산더. 여기서 그는 다리가 회복되자마자 다시 항공단으로 복귀한 일화를 남긴다.



미국으로의 망명

볼셰비키혁명이 일어난 1917년 10월, 알렉산더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발틱 함대 사령관으로 복무 중이었는데 해가 바뀌자 그는 러시아 해군무관으로 미국으로 가게 됐다. 이때 그는 혁명 러시아로 돌아가기보다 미국에 망명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맨해튼에 정착, 간단한 식당을 운영했다.

1918년, 알렉산더는 정보사령관 켈리 장군에게 조종사로 복무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알렉산더는 그간의 경력이 인정돼 항공기 회사의 시험비행조종사와 항공기술자문관으로 일하게 됐다. 종전과 함께 알렉산더는 빌리 미첼 장군의 보좌관으로 임명됐고, 항공력으로 전함을 격침시키는 시범의 기술자문역을 맡았다. 1921년 알렉산더는 공중급유특허권을 시작으로 총 364개의 특허권을 보유했는데, 그 중에는 1923년 스페리 자이로사와 합작으로 개발한 자이로를 이용한 폭격조준기도 포함되어 있었다. 1928년 알렉산더는 미국군 소령으로 임관했다.

세바스키 항공사

1923년, 알렉산더는 폭격조준기 판매수익금 5만 달러로 세바스키 항공사를 설립했다. 항공기 부품과 계기 등을 생산하며 사업에 집중했지만 1929년의 대공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도산하고 말았다. 1931년 2월 16일, 월가의 부호들이 지원하는 가운데 알렉산더는 뉴욕의 롱아일랜드에 세바스키 항공사를 재설립했다. 롱아일랜드 칼리지 포인트로 공장을 옮긴 세바스키 항공사는 특허권이 큰 자산이었다.

세바스키 항공사의 특징은 이전의 설계를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혁신적인 설계를 해 제품의 경쟁력을 높였다는 것이다. 또한 스탈린의 압제를 피해 서방으로 탈출한 러시아의 고급 항공기술자들을 고용해 항공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 중에는 항공기술자로 유명한 마이클 그레고르, 알렉산더 카트벨리도 포함됐다.

세바스키 항공사는 전체가 철제인 단엽기 SEV-3를 개발했다. 이 엄청난 항공기술의 진전은 1933년부터 '39년까지 수많은 최고비행속도를 갱신하게 만

드는 원동력이었다. 알렉산더는 자신이 만든 항공기를 직접 조종한 경우가 많아 사람들은 그를 피치맨(Pitchman)으로 부르기도 했다. 1935년 9월 15일, 알렉산더는 왕복동엔진을 장착한 수륙양용기를 조종하여 최고비행속도 시속 230마일 기록을 수립했다. 1938년에는 대륙횡단 최고비행속도를 기록하기도 했다.

알렉산더는 1934년 가을 당시 첨단항공기의 상징이었던 SEV-3XAR 앞에 섰다. 알렉산더는 설계팀을 직접 이끌고 25개 이상의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세바스키 항공사는 1936년 새로운 공장을 2개나 더 사고 사업을 확장했지만, 알렉산더가 대표로 있는 동안에는 이익을 내지 못했다. 1938년 9월, 알렉산더는 회장으로 물러나고 왈라스 켈레트(Wallace Kellett)를 사장으로 앉혔는데, 알렉산더는 그에게 실권을 많이 줬다.

1938년 겨울, 알렉산더가 유럽으로 항공기 세일즈에 나섰을 때 세바스키 항공사는 1939년 10월 이사회를 열고 회사명을 공화국 항공사(Republic Aviation Corporation)로 바꾸고 켈레트를 회장으로 임명했다. 알렉산더는 법적으로 대응했지만 이사회는 그를 회사에서 추방하도록 결의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이 회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최고의 전투기였던 P-47 썬더볼트를 생산하며 대기업으로 성장한다. 공화국 항공사는 1965년 페어차일드가 인수할 때까지 매우 성공적인 전투기 제작항공사로 발전했다.

항공력 이론의 완성

2차 세계대전이 임박하자 알렉산더는 항공전 이론의 완성에 주력했다.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습이 발발한 직후인 1942년 8월초에 폭격기의 전략적 운용을 강조한 '항공력을 통한 승리(Victory Through Air Power)'를 출판하였는데, 출간되자마자 500만부나 팔리면서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를 4주 동안 기록했다. 이 책은 1943년 월트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영화로 제작되고 실제로 알렉산더와 빌리 미첼이 직접 출연하기도 했다. 그러나 영화는 안타깝게도 히트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전쟁기간 중 전략적 항공력에 관한 뜨거운 논쟁을 일으켰다.

전략적 항공력 사상의 선구자였던 알렉산더의 꿈은 1946년에 전략항공사령부가 창설됨으로써 실현됐고, B-36 Convair와 B-47 Stratojet 같은 항공기들이 개발되었다. 알렉산더는 계속해서 혁신적인 항공기 개발에 진력했고, 1964년 이온화 에너지를 이용한 항공기까지 설계하기도 했다.

전후에 알렉산더는 전략적 항공력 운용에 관한 강의와 저작활동에 진력했는데 1950년에 '항공력: 생존의 열쇠(Air Power: Key to Survival)', 1961년에 '미국: 망하기엔 너무 젊다!(America: Too Young to Die!)' 등의 명저들을 남겼다.

뛰어난 에이스 전투조종사요, 전쟁영웅, 항공기 설계사, 사업가, 저자, 그리고 이론가였던 세바스키는 1974년 8월 24일 뉴욕 메모리얼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고, 브롱스의 우드론(Wood lawn) 묘지에 안장됐다. 그는 1939년 하몬트로 피를 수상했고, 1945년 트루먼 대통령의 메달과 미 공군의 공로표창을 받았으며, 1970년 항공 명예의 전당에 헌정된다. **AF**



제4전투비행대대 소속 조종사인 브랜든 라벨리 대위(좌)와 데릭 빈센트 소령(우)이 네바다 훈련장을 향해 비행중인 모습

Survive and thrive

실제 위협을 가정한 공대공 전투훈련인 레드 플래그 12-2에 다국적 공군 참가하다!
International air forces train at Red Flag 12-2, an air-to-air combat exercise that replicates real-world threats

이군의 B-1 Lancer 폭격기가 연속해서 공중에서 추락한다. 네바다 기지에서 열린 Red Flag 12년도 2차 훈련. '적군'을 맡은 벨리스 공군기지 소속의 64세대 및 65비행대대의 가상 플랜커(수호이 Su-27)와 Mig-29가 이군의 B-1 폭격기를 매 소티마다 성공적으로 제거했다. 두 대의 고고도 폭격기가 출격을 했으나, 모두 적의 표적이 되어 산화됐다. 네 명의 승무원과 탑재된 폭탄이 임무가 실시되기도 전에 손실된 것이다.

레드 플래그 훈련을 실시하는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 실전에서 이러한 시나리오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미국, 한국, 사우디 연합군의 지휘를 맡은 스코트 롱(Scott Long) 대령은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전세를 뒤집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연습 첫날부터 우군의 폭격기가 격추됐습니다." 롱 대령이 말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손실이며, 첫 주 매 소티마다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작전 초기, 우리 '저밀도 주요자산(low-density, high-demand assets)'에 충분한 방어 전력이 없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롱 대령은 유타 주의 Hill 공군기지사속 388전투비행단의 단장이며, 이번 연습에서 원정 항공단의 지휘를 맡았다. 그는 B-1 폭격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중폭격기의 지원 없이 작전을 구상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보통 폭격기는 저밀도 주요 자산으로 일컫는다. 가용대수가 많지 않고, 대량의 폭탄을 운반해 그 가치 표적물을 폭격하는 임무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모든 표적물을 F-15E와 F-16 같은 전투기만으로 파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들 전투기는 무장탑재량(payload)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롱 대령이 말했다. "반면에 B-1은 대량의 정밀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좋은 훈련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창의적인 전략가들에게 이러한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롱 대령은 그 이상의 인센티브를 원했다. B-1 폭격기가 일주일간 격추되는 것을 보고, 그는 반드시 폭격기를 사수하라는 임무를 지휘관들에게 부여했다.

롱 대령에게 자극을 받아서인지, 혹은 그동안의 훈련과 경험 덕분인지 모른다. 그러나 오래 지나지 않아 상황은 현저히 개선되기 시작했다. 더 이상 B-1 폭격기가 한 대도 추락하지 않았으며, 많은 임무가 성공적으로 완수됐다.

레드 플래그 훈련의 주된 목적은 B-1 폭격기의 경우처럼, 조종사와 승무원들이 전투에서 생존해 임무를 달성(survive and thrive)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 훈련은 베트남전 당시, 귀중한 전투기와 조종사의 손실이 늘어남에 따라, 1976년 처음 시작됐다.

6·25 당시, 미 공군의 교전 피격률은 1:10이었다. 그러나 이 비율은 베트남전에서는 1:2 정도로 저하됐다. 곧 미 공군은 실전적인 공중전투기동훈련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최소 10회의 임무를 무사히 수행할 수 있는 조종사를 양성할 수 있는 훈련을 계획했다. 이로써 레드 플래그 훈련이 시작되었다.

이 훈련을 위해 참가자들은 3개의 팀으로 나뉜다. 홍군은 적군을 가장한 역할을 맡는다. 청군은 이군, 백군은 중간에서 교전규칙을 정하고, 이군 피해, 손실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레드 플래그 훈련을 계획할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황이 변하도록 시나리오를 고안합니다. 우리의 주 목표는 실전과 유사한 연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홍군 팀장을 맡은 414전투훈련대대의 케빈 케니 대위가 설명했다.

이를 위해 네바다 기지의 요원들은 전 세계 분쟁지역을 모델로 삼아, 훈련이 최대한 실전과 유사한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네바다 기지의 훈련장은 다른 훈련장보다 기술적으로 진보한 곳으로, 센서, 레이더 및 라디오 타워 등이 정교하게 연동돼 훈련장 내에서 일어나는 작전상황과 비행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또한 네바다 훈련장은 약 1,200개의 목표물을 보유해 미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폭격훈련장일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의 작전지역을 본 떠 보다 실전적인 훈련이 가능하다.

"지구상에 이러한 곳은 또 없습니다." 케니 대위가 말했다. "조종사부터 정비사, 실무자부터 지휘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군인들이 이곳에서 다양한 시험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이 시작된 이래, 다국적 동맹군들도 레드 플래그 훈련에 참여를 원했고, 이는 동맹군들과 군사협조체계를 개선하려는 미국의 이해에도 부합했다. 지금까지 레드 플래그 훈련에 참여한 국가는 25개국 이상이다. 미 공군성과 공군 전투사령부의 국제정책과가 외국군을 네바다로 초대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관여한다.

"우리는 많은 외국군 참가자들과 함께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14전투 훈련대대의 선임 작전장교인 키크 솔츠 중령이 말했다. 414대대는 레드 플래그 연습의 계획수립, 조직 및 운영을 맡고 있다. "저희는 다국적 동맹군들이 레드 플래그 훈련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언어는 다를지라도, 모두들 항공전투의 경험이 있는 같은 공군이기 때문입니다."

레드 플래그 작전에서 최근 새로 추가된 부분은 사이버 위협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다. 이군의 네트워크 보안, GPS항법 및 통신채널 등은 고급기술에 능수능란한 적군들에 의해 위협당할 수 있다. 따라서 레드 플래그에 참가하는 공군인들은 실전에서 이러한 공격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몇 년 전부터 저희는 사이버 공격을 레드 플래그 훈련에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버 공격은 지휘와 통제 시스템을 마비시켜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합니다." 레드 플래그의 비행 편대장인 414전투훈련대대의 시리아코 빌라레알(Ciriaco Villareal) 소령이 설명했다.

또한 훈련요원들은 새로 비물리적 작전협조반(non-kinetic operations coordination cell)¹⁾을 구성, 사이버공간 및 공역의 전문가들이 조종사, 무장장교 등 물리적 공격을 담당하는 요원들과 원활히 협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변화는 '적군에 대해 사용된 모든 물리적/비물리적 공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이다.

1) "non-kinetic effects" : 무장을 활용하는 kinetic effect(물리적 운동에너지)에 대비해 사이버전자전, ISR(정보, 감시 및 정찰) 기술 등을 운용하는 비물리적 효과를 칭함.



미 공군의 B-1B Lancer 폭격기가 네바다 훈련장 상공을 출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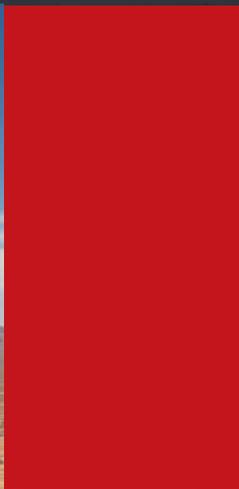
미국의 주요 장거리 폭격기, B-1B Lancer



크리스티나 노르비가드 중위가 항공기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제어판을 운영하고 있다.



브렌든 라벨리 대위가 라스베이거스 시의 북쪽 지역 상공에서 착륙을 위해 방향을 선회하는 모습



B-1B Lancer 출격 전, 28항공정비대대의 닐 라스 일병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8항공정비대대의 저스틴 힐드레스(Justin Hildreth) 상병이 사전 정비를 하는 모습



오kl라호마 주 Tinker 공군기지 652항공통제단의 무장 담당 장교인 라이언 스미스 중위와 크리스티나 노르비가드 중위, 이들은 E-3 Sentry AWACS에 탑승, 적군의 항공기 위치를 연합군 항공기에 알려준다.

레드 플래그 훈련에서는 아주 긴밀한 팀워크가 요구된다. 훈련장의 라디오 기지국을 파괴하는 간단한 시뮬레이션이라도, 3가지 항공기와 그의 운영에 관련된 모든 지원 병력 그리고, 비물리적 효과반(nonkinetic effects cell) 등이 함께한다. 이러한 핵심 팀 이외에도 지휘관, 계획관, 무장담당, 항공연료팀, 넬리스 기지 지원센터 요원, 식당, 수송요원 등 많은 인원들이 서로 돕는다. 대부분, 이들은 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만나보거나 함께 일해본 적이 없다. 외국 군 참가자의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다. 언어가 다르니까.

“모든 참가자들은 서로 협조해야만 합니다.” F-15E의 무장 시스템 담당 장교인 케니 대위가 말했다. “훈련이 후반부로 다다를수록 모든 이들의 업무가 더욱 분주해지죠.”

레드 플래그 훈련 시, 해당 팀장으로서 그는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를 서야 했다. 비록 과거 알래스카 주에서 실시된 유사한 훈련에서 항공팀장을 맡았었지만, 이 정도 규모의 훈련에서 협조업무를 경험한건 처음이었다고 한다.

“일이 매우 많았지만, 이런 훈련에 참여할 수 있어 굉장히 보람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맡은 일은 참모지원업무이지만 유익한 경험이었고, 이곳에서 새로운 방식의 업무와 협조를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케니 대위가 전했다. **AF**



제4전투비행대대의 토르 볼랜드 대위와 브랜든 라벨리 대위가 이륙을 위해 주기장으로 항공기를 유도하고 있다. 이번 훈련엔 동맹 연합군인 대한민국,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이 이번 합동훈련에 참가했다.

네바다주 Nellis 공군 기지에서 실시된 레드 플래그 전투훈련 연습에서 28항공정비대대의 한 장병이 B-1B Lancer를 비행 준비시키고 있다.





01 / 서 베를린은 목에 걸린 가시라고 불렸을 만큼 구 소련에게는 매우 거주장스러운 존재였다.
사진 출처: 미 국방부

사상 최대의 공수작전, 베를린 공수작전

Berlin Airlift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전 세계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러한 희망은 한 순간에 불과했다. 냉전의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우기 시작한 것이다. 과거 독일과 맞서 싸웠던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구 소련은 전쟁이 끝난 직후, 동·서 진영으로 나눠 대립하기 시작했다. 패전국인 독일은 서방과 구 소련의 점령지로 분할되고, 수도인 베를린도 동·서로 나뉘지는 수모를 겪었다. 결국 독일은 국가 전체가 냉전의 한복판에 자리 잡게 됐다.



풍전등화의 베를린

베를린은 당시 연합국 점령지로부터 177km 떨어져, 구 소련 점령지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연합국의 관할 구역인 서 베를린은, 구 소련 점령지의 “목에 걸린 가시”라고 불렸을 만큼 구 소련에게는 매우 거주장스러운 존재였다.

1948년 2월, 미국, 영국, 프랑스는 독일이 구 소련의 위성국가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여, 독일 내의 미국, 영국, 프랑스의 점령지를 통합하고 단일 통화를 도입하기로 결정한다.

이에 반발한 구 소련은 연합국 공동관리위원회에서 탈퇴하고, 4월부터는 철도를 시작으로 육로와 수로를 통한 서 베를린 통행을 제한하기 시작한다.

이와 함께 전투기를 동원해 항공로까지 위협한다. 구 소련의 봉쇄정책에 대항하여 미군은 중요 보급품을 트럭으로 긴급하게 수송했고, 구 소련군 전투기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수송기를 동원해 소규모의 공수작전을 실시하였다.

02 / 1948년 4월 구 소련의 베를린 봉쇄에 맞서 미군은 소규모의 공수작전을 개시한다.
사진 출처_미 공군



화폐개혁과 함께 시작된 베를린 봉쇄

구 소련의 봉쇄정책은 비록 얼음 만에 끝났지만, 서방세계는 봉쇄정책에 결코 굴하지 않았다.

1948년 6월 중순, 서 베를린에 새로운 독일 마르크화가 도입되자 구 소련은 다시 한번 육로와 수로를 봉쇄하기 시작했고, 전기마저 끊어 버렸다.

6월 24일, 독일 주둔 구 소련군 총사령관은 성명을 통해 베를린의 4개국 행정위원회 폐지를 선언했고, 서방세계는 베를린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6월 25일에는 서 베를린 시민들에 대한 식량 공급도 중단시켰다.

구 소련은 베를린 봉쇄를 통해 서방세계가 서 베를린을 포기하기를 바랐다.

그리고 서 베를린 시민들이 공산주의 체제에 순응하도록 강요했다. 구 소련의 봉쇄 조치로 40만 명의 서 베를린 시민들과 서방세계 군인들이 외부세계와 고립됐다.

철저히 봉쇄된 베를린의 육로와 수로. 하지만 소련은 항공로만큼은 예외적으로 봉쇄하지 않았다.

03 / C-54 수송기는 4발 엔진을 장착하여 한번에 10톤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었다.
사진 출처_미 공군

04 /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패전국 독일은 서방세계와 구 소련의 점령지로 분할되었다.
사진 출처_구 소련군





Operation Vittles

미 공군은 6월 26일을 기해 서 베를린에 대한 대규모 공수작전인

Operation Vittles^{1)식량품}를 감행했다.

작전 첫날 미 공군 소속의 C-47 수송기 32대가, 80톤(t)의 식량과 각종 물자를 실어 날랐다.

6월 28일부터는 영국 공군 소속의 수송기들도 공수작전에 투입되었다.

그러나 서 베를린 시민들과 서방 국가들의 군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매일 4,500톤에 달하는 식량과 각종 물자들이 필요했다.

유럽에 주둔한 미 공군 수송기는 C-47 수송기 100여 대에 불과했고, 영국 공군의 처지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유럽 주둔 미 공군은 미 국방부에 대형 수송기인 C-54 스카이 마스터(Sky master) 수송기를 요청했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미 국방부는 미 본토에 배치된 C-54 수송기를 긴급히 독일에 전개시켰다.

C-54 수송기는 4발 엔진을 장착하여 한번에 10톤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었다.

05

800대가 넘는 수송기가 동원되어 서 베를린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식량과 물자들을 보급하고 있었다.

사진 출처: 미 공군



공중의 생명선

C-54 수송기가 독일에 도착하자 공수 작전은 탄력을 받기 시작한다.

하루 평균 500톤 이상의 물자를 수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작전이 진행 된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800대가 넘는 수송기가 동원되어 서 베를린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식량과 물자들을 보급하고 있었다.

최고 절정기에는 2.5분에 1대 꼴로 수송기에서 베를린에 착륙했다. 구 소련은 간혹 비행경로 상에 전투기를 띄워 수송기들을 위협했지만, 직접적인 공격은 자제했다.

수송기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상에서도 바쁘게 움직였다.

특히 서 베를린 공항들의 수용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템펠호프(Tempelhof) 공항에 추가적으로 활주로가 건설되었고, 가토브(Gatow)와 테겔(Tegel)의 활주로를 재건하였다.

활주로 공사에는 서 베를린 시민들이 동원되었고 화물의 이송과 수송기의 정비에는 전 독일 공군의 지상 요원들이 동원되었다.

06

화물의 이송과 수송기의 정비에는 전 독일 공군의 지상 요원들이 동원되었다.

사진 출처: 미 공군



07

서 베를린 시민들과 서방 국가들의 군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매일 4,500톤에 달하는 식량과 각종 물자들이 필요했다.

사진 출처: 미 공군



08 / 3톤 이상의 사탕이 서 베를린에 투하되게 된다.
사진 출처_미 공군

Operation Little Vittles

7월 17일, C-54 수송기를 몰고 템펠호프 공항에 도착한 미 공군 소속의 게일 할버슨(Gail Halvorsen) 중위는, 활주로 끝에서 수송기를 바라보던 아이들을 발견한다.



중위는 아이들에게 자신을 소개했고, 아이들은 수송기와 비행에 대해 물어보았다. 아이들을 기특하게 여긴 중위는 무언가 주고 싶었지만, 그의 주머니에는 껌 두 개 밖에 없었다. 결국 중위는 껌 두 개를 쪼개서 아이들에게 나눠 주면서, 아이들과 약속을 한 가지 한다. 다음에 올 때는 수송기에서 더 많은 껌을 떨어뜨리겠다고 말이다.

아이들은 어떻게 수송기를 알아보느냐고 물어 보았고, 중위는 날개를 흔들어 신호를 보내겠다고 얘기했다. 다음날 그의 수송기는 베를린으로 향했고 날개를 흔들며 비행하면서, 손수건으로 만든 낙하산을 이용해 초코바를 떨어뜨렸다.

첫 번째 투하 이후 중위는 매일 같이 초콜릿과 사탕을 투하했고, 이로 인해 그의 수송기를 찾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났다.

중위의 선행은 아이들의 감사편지로 지휘관마저 알게 되었고, 감동을 받은 지휘관은 직권으로 사탕 투하를 지시하였다.

중위의 사탕 투하는 이후 "Operation Little Vittles" 라는 이름으로 다른 조종사들과 승무원들까지 동참하게 된다.

이 소식은 미국 본토에도 전해져 더 많은 사탕이 모이게 되었다.

나중에는 사탕제조업체들까지 참여하여, 3톤 이상의 사탕이 서 베를린에 투하되게 된다.

09 / 게일 할버슨 중위로 부터 시작된 Operation Little Vittles 사진 출처_미 공군



실패로 끝난 베를린 봉쇄

구 소련은 1948년 4월에 벌어진 공수작전만을 생각하며, 공수작전이 실패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공수 작전은 날이 갈수록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구 소련은 겨울의 동장군에 마지막 기대를 걸었지만, 날씨가 서방세계의 편에서 있었다.

동장군보다는 오히려 안개가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부활절 기간에는 서 베를린 시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특별한 공수작전이 시작되었다.

24시간 동안 수송기들이 서 베를린으로 1,383회의 비행을 했고,

12,941톤의 난방용 석탄을 수송했다.

결국 구 소련은 공수작전이 서방세계의 성공적인 선전장으로 전략해가자,

마지못해 봉쇄를 푸는데 동의하게 된다.

1949년 5월 12일 베를린 봉쇄를 해제한다.

그러나 혹시 모를 봉쇄에 대비해 서방세계의 공수작전은 계속 되었고,

10월 1일이 되어서야 공수작전이 종료되었다.

10 / 1949년 10월 1일 종료된 베를린 공수작전 사진 출처_미 공군



맺으며

구 소련의 베를린 봉쇄를 계기로 동·서간의 대립은 결정적으로 악화되었다.

서방세계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NATO를 창설했고, 구 소련과 동구권은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는 군사 동맹을 설립하게 된다. 베를린 봉쇄의 결과로 동·서 냉전이 가속화 된 것이다. 수많은 수송기들이 작전에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작전으로 인한 사고율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낮았다.

작전기간 동안 수송기 18대가 사고로 파괴되었고, 사상자는 40여 명에 불과했다.

또한, 헌신적인 조종사들의 노력으로 서 베를린 시민들은 기아와 추위 그리고 공산주의의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AF**

LEADERSHIP

정리정돈을 잘하는 법

몇 년 전, 매일 늘어만 가는 서류들과 E-mail로 골치를 앓고 있던 차에 스테파니 윈스턴의 저서 '성공하는 CEO들의 일하는 방법'을 읽게 되었다. 미국 최고경영자들의 업무관리와 시간관리 습관을 다룬 내용은 책상에 쌓여가는 서류와 누적되는 E-mail로 낭패를 겪던 나에게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기에 충분했다. 나와 다른 그들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방법에 깜짝 놀라게 되었는데, 그들의 서류 처리 방식은 한마디로 '가차 없이 처리한다.'였다. 하

사람들은 평소에 여기저기 흩어놓은 정보를 관리하느라 많은 시간을 낭비한다. 한 통계에 따르면 일반적인 비즈니스맨의 경우 하루에 190개의 정보를 입수하고, 물건을 찾는 데 1년에 150시간을 소비하고 있다고 한다. 물건을 찾는데 시간을 소비하지 않는다면 매년 거의 1달 정도의 여유가 생긴다는 얘기가. 나 또한 오랫동안 시간낭비 요인과의 전쟁을 치러왔고 지금은 소중한 것을 중심으로 한 시간관리 노하우를 잘 실천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내가 그간 일을 미루지 않

고, 흩어진 정보를 찾아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시간관리 도구인 플래너를 사용한 것이다. 플래너는 각각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구분해 쉽게 찾아볼 수

나의 서류가 미결함에 들어갔다 나가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고작 10분이었다. 나는 처음에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의 경영자들에게는 서류와 E-mail 처리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전담 직원이 없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다. 그들이 수많은 서류와 E-mail을 혼자 처리할 수 있는 비결은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훨씬 전부터 이미 '가차 없이 서류를 처리하는 습관'을 가진 데 있었다. 리더들은 자신이 브랜드 관리자나 하급 재정분석가였을 때부터 책상을 깨끗하게 정리했던 것이다. 깨끗한 책상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전문 비서가 있거나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서류를 정리할 때마다 신속하게 4가지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TRAF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4단계는,

- '버린다(Toss)', '전달한다(Refer),
- '처리한다(Act on)', '철한다(File)'이다.

예를 들어 6개월 후에 열리는 업계 세미나에 관한 브로슈어를 받은 경우에 TRAF 시스템을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버린다. 세미나에 관심이 없는가? 그러면 폐기한다. 둘째, 전달한다. 자료가 당신이 알고 있는 누군가와 관계가 있는가? 그러면 넘겨준다. 셋째, 처리한다. 세미나에 참가하고 싶은가? 그러면 즉각 신청서를 제출하라. 넷째, 철해둬라. 샘플 브로슈어를 모으고 있는가? 그렇다면 따로 철하여 보관하라.

있도록 고안되었고, 플래너 한 곳에 각종 정보들을 적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다 보니 시간 낭비와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플래너에는 오늘의 우선 업무를 처리한 후 각 항목에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 (✓): 업무의 완료,
- (→): 그날 완료하지 못하고 연기됨,
- (X): 취소, (O): 다른 사람에게 위임,
- (·): 진행 중

이 그것이다. 사실 TRAF 시스템도 5가지 업무 처리 방식과 같은 맥락이다. 이 원리를 일찌감치 깨달은 알란 라케인(Alan Lakein)도 '서류는 딱 한번만 정리하라'고 말했다. 정보 홍수의 시대에 새로운 복병으로 떠오른 각종 서류와 E-mail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법을 알게 된 뒤로 나는 많은 유익을 얻었다. 내가 만났던 TRAF 시스템이 매일 쏟아지는 정보에 대한 독자들의 신속하고도 강력 한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AF

공군 IN

기획특집 Green Air Force, Green Growth!
우리 장병들이 달라졌어요
녹색성장! 내가 먼저, 우리 함께

Photo Sketch Let's go Together to the Victory! Practice Generation

포토프레임@AF 핵안보 정상회의 대비태세 점검 외

AIR FORCE MONTHLY 2012. 04. NEWS

생각하는 그림 행복이 어디 멀리 있는 줄 아셨소?

Green Air Force, Green Growth!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실천하는
녹색공군의 면모를 다뤄봅니다.

1. 저공해 자동차를 탑승해요.

— 저공해 업무용 승용차 확대 운영 —



광활한 비행단을 이동하기 위해 운영하는 미니버스와 콜택시, 그리고 각종 업무용 차량. 공군은 이러한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을 방지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저공해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차량은 전기자동차. 1회 충전에 100~200km를 주행할 수 있고, 승용차 대비 운영유지비를 연간 237만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탄소와 매연배출이 없고, 소음이 적은 이점이 있죠. 공군은 2009년부터 20전투비행단에서 전기자동차를 시범 운영했으며, 점차적으로 운영부대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를 2014년까지 50% 이상 경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전환할 예정이고, 1톤 화물차량과 상용지프 구매 시 20% 이상을 ‘저공해 경유차량’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2.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해요.

— 친환경 제설제 도입 —

누가 그랬던가요, 군인에게 있어 눈은 ‘악마의 가루’라고. 특히나 광활한 비행단에 눈이 계속해서 내리면... 탄식이 절로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설제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무엇보다 비용 대비 효과가 좋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국내에서 주로 제설제로 쓰이는 염화칼슘은 근처 수목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차량 등 금속 물질에 부식을 일으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공군이 친환경 제설제, 포타슘아세테이트를 도입한 것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포타슘아세테이트는 사용 후 20일이 지나면 완전히 분해되거든요. 또한 기존의 제설제보다 제설 시간이 빨라 유류를 적게 소모하고, 대기오염을 저감시킵니다. 공군은 작년, 56,000ℓ의 친환경 제설제를 조달해 각 부대별로 보급했으며, 이를 통해 녹색환경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 태양열로 전기를 만듭시다.

-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

처음 시작은 공군 내 미활용 부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보다 좀 더 의미 있게 부지를 활용하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수많은 토론과 고민 끝에 공군인들은 한 가지 놀라운 아이디어를 발굴합니다. 전군 최초로 제3훈련비행단(이하 '3훈비')에 태양광 발전단지를 설치한다는 것! 3훈비가 선정된 큰 이유는 일조량이 좋아 태양광 발전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조성사업은 기부채납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공군은 3훈비 내 4만 2,000㎡ 부지를 사업자에게 제공합니다. 이후, 사업자는 연간 발전량 340만KWh 수준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공군에 인계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설치비용은 사업자에게 전력판매 권리를 15년 동안 보장해 설치비용을 보전해줍니다. 공군이 태양광 발전소 활용으로 얻는 전기세 절감은 연간 2억 6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4. 친환경 운전법을 배웁시다.

- 에코드라이빙 교육 확대 -

비행단 미니버스 운전병인 김 일병은 입대한 지 6개월이 안 된 운전병입니다. 잠시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던 김 일병. 갑자기 수송지원요청이 들어오네요. 언제든지 출발하기 위해 시동을 계속해서 걸어놓아서 그런지 김 일병의 귀에는 무전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투덜거리는 소리와 함께 김 일병은 거칠게 액셀러레이터를 밟습니다. 아직 운전이 미숙한 김 일병. 제한속도가 넘는 김 일병의 미니버스는 급제동과 급발진을 반복하며 요청장소로 향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은 김 일병의 운전습관에서 무엇을 발견했나요?

에코드라이빙은 공회전, 급제동, 급발진 등 그릇된 운전습관을 찾아, 연료를 절약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운전법입니다. 특히나 공군은 7,200여 대의 차량과 4,500여 명의 운전요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에코드라이빙 교육이 필수적이죠. 이를 위해 공군은 지난 2009년부터 교육사령부에 에코드라이빙 실습장을 만들어 신입장병 실습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2010년 환경부 주관 '친환경운전 실천사례 공모전'에서 기업·단체부문 환경부장관 최우수상 수상, 2011년 교통안전공단 에코드라이브 우수기관 선정(금상)으로 돌아온 바 있습니다.



5. 새로운 에너지 활용에 힘써요.

- 신재생 에너지 활용 확대 -

태양광 발전, 태양열 급열, 지열 냉난방, 바이오디젤... 고유가,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는 이 시대에 각광받는 신재생에너지들입니다. 그런데 공군에서 이미 이 에너지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식물성 유지와 같이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제조되는 바이오디젤 연료는 군내 최초로 도입했죠.

공군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은 2009년도부터 추진됐습니다. 공군사관학교 생도생활관 지열에너지 도입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교육사에 태양광/태양열 시스템, 작년에는 항공우주의료원, 11비 110대대 등에 지열에너지 시스템을 적용했죠. 올해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좀 더 많은 부대로 확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구현에 앞장서는 공군이 되고자 합니다.



6. 에너지 사용량을 정확히 체크해요.

- 에너지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

앞으로는 공군 전체의 에너지사용량(유류, 가스, 전기, 수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종합관리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기 이전에는 월별 에너지 사용실적을 종합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을 뿐만 아니라, 부대별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하고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번 시스템 개발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된다고 합니다.

공군은 앞으로 '에너지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각 부대들이 지속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매월 에너지절약 우수부대를 선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에너지절약 수범 사례 및 제안 게시판'을 생성, 장병들의 참여를 적극 장려할 계획입니다.



7. Green Base! 우리가 만들어요.

- 친환경부대 건설 -

공군은 전 부대가 친환경기지(Green Base)로 거듭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부대와 환경이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지요. 장병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해작업장 환경 및 석면함유 건축물을 개선하고 있으며, 기지 주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오수처리시설을 개선 중입니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노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작년부터 비행단급 이상 전 부대는 건물마다 에너지 인가제를 시행 중이며, 오래된 백열등, 할로겐등을 LED램프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제품 구매를 장려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분리수거를 통한 자원재활용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대한민국의 영광을 넘어 환경까지 지키는 공군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



8.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요.

- 탄소관리체계 운영 -



'교토의정서' 라는 협약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지구온난화 규제와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말합니다. 체결 당시,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감축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의무감축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이 이제는 필요한 셈이지요.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공군도 탄소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분류한 후, 월별 사용량을 입력하면 IPCC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자동 산출됩니다. 탄소관리체계는 공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해 계량화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감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협의체

9. 친환경적인 LED 전구를 사용해요.

- 이동형 활주로 조명등 개발 -

칠흑 같은 어둠, 야간비행 중인 조종사들에게 활주로의 조명등은 반갑기만 합니다. 안전하게 비행을 마쳤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조종사들의 등대인 조명등이 사실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기존 이동형 활주로 조명등으로 쓰이고 있는 네온전구는 전력소비량이 많고, 폐기 시 산업폐기물로 처리됩니다. 반면, LED 전구의 경우 전력소비량이 네온보다 적어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명도 기존 200시간에서 30,000시간으로 150배 증가했죠. 또한 LED 전구는 네온전구보다 가벼워 보다 쉽게 운반이 가능합니다. 공군은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각 비행단의 이동형 활주로 조명등으로 친환경적인 LED 전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10. 이상기후변화를 연구해요.

- 군사기상연구 활동 -

최근 지진, 쓰나미, 기상이변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전 세계적인 재앙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도 예외일 수는 없죠. 공군은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환경 및 기상이변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군 유일의 기상 전문부대인 공군기상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연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군기상단에서는 기후변화 세미나 참가, 논문발표, 전군 기상/재난 관계관 회의 및 기후예측 발전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11. 전투복을 버리지 말고 재활용해요.

- 폐전투복 재활용 -

20여년 만에 전투복이 개정됐습니다. 기존의 얼룩무늬 전투복에서 위장능력이 강화되고 착용감이 우수한 디지털 전투복으로 말이죠. 공군은 이번 복제개정으로 생긴 기존의 얼룩무늬 전투복을 새롭게 재활용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양호한 전투복은 병사들의 노후 전투복을 교체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 시설/정비/유류 분야 등 야외작업이 많은 곳에는 작업복으로도 지원되죠. 상태가 불량한 전투복의 경우에는 기름걸레로 사용하거나, 샌드백으로 제작해 폐기량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공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군수품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고, 물자예산을 절감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2. 멀티미디어 교범으로 종이를 줄여요.

- 친환경 디지털 교범 -

최근 정부는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에 따라 2015년까지 초·중등학교 서책형 교과서를 디지털 교과서로 100% 보급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공부한 미래 세대들이 향후 군에 입대할 것을 고려하면, 공군도 앞으로 디지털 학습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제지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환경파괴를 고려하면, 디지털 교범의 필요성은 자명해집니다.

'친환경 디지털 교범'은 교육생별 필요한 인쇄물을 멀티미디어 디지털 교범으로 전환 후, 스마트패드 1대에 통합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불필요한 종이낭비를 줄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감시킬 뿐만 아니라, 학습가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에 도움이 될 '친환경 디지털 교범'은 '스마트한 그린공군'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AF**



OECD에 따르면, 제지산업은 화학과 철강산업 다음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다고 한다.

★ 장병들이 우리랑 달라졌어요

굉장하다!
글·그림 송
ECO 하게!

오늘의 주인공
에너지 먹보
김장병 (23)

귀요미하게 아근중!!

이 순박한 인상의 어린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

아아!!!

불필요한 형광등 사용

컴퓨터 켜 놓기

방송 시작하자마자 에너지를 마구마구 낭비하고 있어요~~~!!!!
에너지 먹보라 불릴만합니다!!!!

콘센트 꽂아 놓기

이 어린이의 개과천선은 가능할까요?!!

전문의 송

흠...정말 심각하군요.

저도 모니터를 두 개씩 켜놓는 낭비를 하지만...

그래도, 그 용도와 목적은 뚜렷하거든요.(?)

하악.. 배트맨님...!!

조소령님. 이 사람 믿어도 괜찮습니까?

어쨌든!! 솔루션에 들어 가기에 앞서...

우리는 왜!!! 에너지를 아껴야 하는가?!

아껴야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지구가 아프기 때문이에요!!

아야아야
몸이 너무
뜨거워요!

탄소 발생 좀
줄여주세요!



23세
어른이



당신의 돈을 짹짹
빨아갈 테니까요!!



고유가 시대에 우리나라에선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죠.

그렇게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모두 수입하니 무역적자가 나고.....
또 나고..... 부채는 증가하고...
경지는 파탄 나고.....
내 주식도 파탄 나고.....
나는 한강 가고.....



살아서 무엇
하리.



좌절하기엔 일러요!
이제부터라도 에너지를
절약하면 된다고요!

불필요하게 형광등이나
PC를 사용 하지 않고



개인 컴퓨터엔
PC 절전 프로그램을
설치해요!

서울강서구에선 이 방법으로 연간
239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보았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전원을 꺼도 콘센트에선
돈이 줄줄 빨려나가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



플러그를 뽑아요!

소모 전력의 11%나
차지하는 대기 전력을
줄일 수 있어요!



절전 멀티탭을 사용하면 관리가 더욱
쉬워요. 사용 후 엄지발가락으로 시뮬리
전원 버튼만 눌러요!

아...! 이것은 집에 가자마자 컴퓨터를
발가락으로 켜는 듯한 쾌감...!!



[끼기]만
잘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지죠!



실내 적정 온도를 지켜요!
하계 28도 이상
동계 18도 이하....

까악!!
어떻게 그걸 지켜요?
덥고 추워 죽겠구만!!!
이상한 사람아니네?!!!

와자봉~ 환경파괴로 다 같이 **다이(DIE)** 해야지!
손자의 손자쯤엔 멸종하겠지? 두근 두근!!♡

원래 여름,
겨울은 덥고
추운 법이죠.

여름 감기는 개도
안걸린 다는데

멍

건강을 위해서도
냉/보온 용품을
애용해요!

여름엔 쿨매트, 얼린생수,
입이 큰 식물 등으로
체감 온도를 낮추고

겨울엔 담요와
내복으로 체감
온도를 높입니다.

*단 개인 전열기구는
극악한 에너지 효율은
물론, 화재의 위험도 크니
사용하기 있길 없기?! 없기!

양치할 때
개인용 물컵을 사용하고

취취취취!!!!!!
촹촹촹촹!!!!!!
커어억튀에어엿!!!

세수 할 때
물을 받아 사용합니다.

푸확!!!!!!푸확!!!!
팍팍팍!!!! 어푸푸푸!
크으으흥!!!!

또, 세탁물은
모아서!!

꾸르르릉!!

거기에 **친환경 운전**까지 한다면
당신은 완벽한
에코(eco) 드라이버!!

급가동, 급출발
공회전, **NO!**

어머...저렇게
부드러운 남자는
처음이야...!

또한, 전력 피크타임에는 냉/난방
가동을 중지합니다...람쥐!

오전 11시 ~ 12시
오후 17시 ~ 18시 에는,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OFF

만약, 과도하게 몰린 전력 수요로 국가적
정전사태 - **블랙아웃**이 발생하면

@23(5)*!!

2(0L(!0* | ㄹ)(*@&

*(&0Lㄹ

으앙!!!

상상치 못할 재앙이 일어날 수 있죠.

설마
그러겠어? ㅋㅋ

라는 생각은
금물!

누구든 설마하다
뭐되는거야...
아주 뭐되는거야...!

도보와 자전거 애용하기는 생략할게요.
워낙 여러분이 잘 지켜서!!!



내가 비행단 견학 때 봤어!!
우리 장병님들 너무 잘 지키셨슈!!

해헤

자동차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승용차 5부제**를
적극 준수하여Yo!

끝자리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Yo! Man~!
오늘 화요일, 앤드
유 아세븐, Man~



오!
쓰루 베이비!

No

승용차 5부제를 지키면 학창 시절, 날짜에 따라 발표에 걸리던 심장 쫓기던 추억을 느낄 수 있지요.....**좋으대!**



가만... 오늘이 15일이나까...
5번, 5번이 풀어볼까?
누구지?

미나
멍니

만약 해당 요일인데
꼭, 기필코, 반드시 차를
타고 싶다면,

왠지 오늘 차를
타면 로또에
당첨 될 것
같아!!



주거지 별로
키편(함께 타기)을
해 보아요!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입니다!

승용차를 함께 타면 에너지 절약은 물론,



호떡 같이 드시겠습니까?

음?

공군의 화목한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되죠!



상관을
저렇게 친근하게
대해주다니...

나는 윈민해선 눈물이
안나는 사람인데 눈물이 나오네

어때요, 참습죠?

네!!!
당창 실천
해야겠어요!!



자구와
지갑을
위해!

We Can Be Heroes!

대한민국의 영공을 넘어
지구의 환경까지도 수호하는 영웅,
바로 **공군 장병 여러분**입니다!

저도 실천에 힘쓰겠습니다! 파이팅! AF





군대와 자연환경은 공존할 수 있을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환경적인 군대를 머릿속에 그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활주로나 전차훈련장을 위해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우는 군대, 전투기와 탱크를 운용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화석연료를 소비하는 군대를 아무래도 먼저 떠올릴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그림에 사격장이나 비행단의 소음까지 공감각적으로 보태게 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되지 싶다. 최근 제주 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기지가 결국은 제주의 아름다운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군에도 녹색 바람은 불어오고 있다. 미 해군의 경우 화석연료와 바이오연료를 혼합해 사용하는 전투기 F-18 그린호넷의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나아가 전 함대가 바이오연료를 사용하게 될 녹색함대(Green Fleet)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 3대 전략, 10대 추진과제, 30대 실천과제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3대 전략은 기후변화 대응 및 국방에너지 혁신, 국방 신성장동력 창출, 장병생활방식 변혁 및 녹색군 위상 강화인데, 세부 실천과제로 군부대 탄소관리 모델

개발, 탄소저감형 장비 및 차량 보급, 저탄소 연료사용 확대, LED 전등교체, 환경친화적 교육훈련방법 개발, 저탄소 고에너지형 신무기체계 개발 등 구체적인 아이টে들을 정해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다. 공군의 전기자동차 운영, 천연가스 버스 도입, 바이오디젤 등 친환경적 에너지 조달, 친환경 시설제 도입, 에코드라이빙 캠페인 등은 국방 녹색성장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의 경우, 친환경적인 사업을 위해 찬반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동생태계조사를 포함해 총 7회에 걸친 환경조사를 실시했고, 연산호 군락지 보호를 위해 자연착생을 돕는 피라미드형 특수 콘크리트 구조물들을 설치하기도 했다. 멸종 위기종의 보호를 위해서는 붉은발 말뚝게 300여 개체, 맹꽁이 유생 900여 개체를 다른 서식지로 안전하게 이식하는 등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했다. 사업부지 내 해안의 구럼비 바위의 경우, 환경전문기관에서 '보존가치가 낮은 평범한 바위'라고 평가하기는 했지만, 반대단체들의 주장을 존중해 바위 지역의 일부를 자연상태로 보전해 수변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제주와 어울리는 세계적인 '그린베이스(Green Base)'가 건설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적인 노력들만으로 국방분야에서의 녹색성장이 구현되기는 쉽지 않다. 모든 장병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작은 습관부터 함께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 두 가지 제언을 적어본다.

첫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녹색성장은 내가 먼저(Me First), 우리 함께(We Together)'라는 주인의식이다.

녹색성장 실천과제의 책임이 지휘관과 담당부서에만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의 일이고 동료들과 늘 함께 실천해야 하는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전 부대 전 요원이 자신의 일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따라주어야만 부대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방치해놓은 전원플러그, 분리되지 않은 생활 쓰레기, 작업장 주변의 폐기물, 산이나 강가 등에 함부로 버린 오물 등이 자연환경을 훼손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몸, 나아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몸에 폐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있어야 한다.

둘째는 녹색성장을 위한 생활습관이다.

주변에서 눈에 띄는 쓰레기를 줍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에서부터 한등 끄기 행사, 점심시간 소등, 퇴근 시 플러그 뽑기, 엘리베이터 적게 타기, 자전거 출퇴근, 잔반 줄이기, 개인컵 사용, 장바구니 애용하기, 샤워시간 줄이기, 겨울에 내복 입기, 여름철 실내온도 높이기, 친환경 제품 구매, 에코드라이빙, 차량이나 장비 공회전 최소화하기, 나무 심기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녹색 생활습관은 얼마든지 있다. 녹색 생활습관을 위해 공군본부 군수참모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녹색성장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해보는 것도 적극 추천한다. 이 홈페이지는 녹색성장에 대해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갖가지 정보들은 물론, 부대별 추진과제, 탄소배출량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제공한다. 장병들의 녹색 생각, 즉 친환경적인 아이디어들을 공유할 수 있는 게시판도 있으니 에너지를 아끼고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을 서로 나누고 배울 수 있다.

군은 생애적으로 안보를 위해 존재한다. 전지구적인 오존층 파괴와 기후의 변화, 환경오염 문제는 테러, 해적행위, 사이버 공간에서의 해킹, 전염성 질병, 대규모 자연재해 등과 더불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어쩌면 지금까지의 어떤 적들보다도 훨씬 더 파괴적이고 가혹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이제 평화 유지를 위해 환경을 생각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당장은 조금 불편하고, 비용을 조금 더 들더라도 우리는 친환경적인 생각과 습관을 앞세울 수 있어야 한다. 근시안적인 산업화와 도시화로 병들어버린 지구, 우리 세대는 물론 우리의 후손들이 길이 살아가야 할 지구에게 편안한 침을 주고, 열을 내려주고, 상처를 싸매주는 일은 쓰지 않는 전원 코드를 뽑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야만 군과 환경의 아름다운 공존을 추구해갈 수 있다. **AF**

Let's go Together To the Victory!

Practice Generation

○ 공군 38전투비행전대와 미 공군 8전투비행단은 지난 3월 2일, **한·미 연합 전시 최대무장 장착훈련(Practice Generation)**을 실시했습니다. 지난해까지 Elephant Walk라는 이름으로 미 8전투비행단이 단독으로 실시하던 훈련을 올해부터 한·미 연합훈련으로 확대 시행한 것이지요.

조종사, 무장·정비사 400여 명과 KF-16, F-16 등 한·미 전투기 60여 대가 참여한 이번 훈련은 유사시 적 핵심표적을 신속히 타격하기 위해 전투기에 최대무장을 장착하고 출격하는 절차를 숙달할 수 있습니다. 그간 한·미 공군은 Max Thunder 훈련 등을 통해 공중전 및 전술폭격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지만, 수십 대의 전투기가 참여해서 무장장착과 활주로로 이동하는 훈련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적 지역의 주요 표적을 신속히 타격하라!

훈련은 전쟁 발발 상황을 가정하여 적의 주요표적을 타격하라는 명령이 하달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분·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공군38전투비행전대와 미 공군 8전투비행단의 무장·정비사들은 각각 KF-16과 F-16 전투기에 전시상황과 동일한 종류와 중량의 무장을 신속하게 장착했고, 출격준비가 완료된 조종사들은 전투기들을 차례로 활주로에 도열시켰습니다.





◎ 연합 공군의 작전 수행능력과 굳건한 한·미 동맹을 과시하다!

이후 가장 선두에 있는 전투기부터 출격지점으로 이동하자 한·미 공군 도합 60여 대의 전투기가 공대공, 공대지 등 가공할 무장을 장착하고 활주로를 함께 진군하는 장관이 펼쳐졌으며, 이는 막강한 연합 공군력과 굳건한 한·미 동맹을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AF**





핵안보 정상회의 대비태세 점검

참모총장은 3월 20일, 핵안보 정상회의를 앞두고 제15혼성비행단과 경호상황실을 방문하여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참모총장은 먼저 제15혼성비행단을 찾아 “행사기간 중 전 장병은 작전보안에 유의하면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완벽한 경호 작전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경호상황실을 방문해 “군과 각급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최상의 팀워크로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리라 믿는다.”고 격려했습니다.



천안함 용사 2주기 추모식

참모총장은 3월 26일, 대전 국립현충원 현충광장에서 거행된 천안함 용사 2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애도의 뜻을 표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사회 각계 인사가 대거 참석해 고인의 명복을 기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 의장인 관계로 일정을 앞당겨, 23일 천안함 용사들의 묘역을 미리 찾아 참배했다.



2012년 공군 주임원사 회의

참모총장은 3월 22일, 2012년 공군 주임원사 회의에 참석해 격려했습니다. 이날 참모총장은 “각급 부대 주임원사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장병들의 군인화에 있는 만큼 투철한 국가관과 확고한 안보관 확립에 정성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선진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정성이 필요하며,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이 같은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심판관 임명장 수여

참모총장은 3월 13일, 2012년 공군 심판관 임명장을 수여하고 격려했습니다. 이날 참모총장은 “심판관을 운영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군 경험을 군판사와 함께 공유하고, 군사재판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여러분은 심판관으로서 지휘권 확립과 장병 권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형된 시각으로 신분·계급에 무관하게 공정함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당부했습니다.



AIR FORCE MONTHLY

2012. 04. NEWS

제20전투비행단, 전시 전투기 최대출격훈련 실시

적 핵심 군사시설 타격, 초전에 끝낸다!

지난 3월 21일, 제20전투비행단은 서산기지에서 조종사, 무장·정비사 150여 명과 KF-16 전투기가 40여 대가 참여한 가운데 '전시 전투기 최대출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핵 안보정상회의와 천안함 피격사건 2주기를 앞두고 적의 도발의지를 꺾고, 유사시 도발원점까지 타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실시됐다.



20전투비행단 소속 무장사들이 KF-16전투기에 GPS 정밀유도폭탄인 JDAM(합동정밀 직격탄)을 장착하는 모습

‘핵안보 정상회의’ 앞두고 민·관·군 합동 대테러 훈련 실시
대구국제공항 안전, 제11전투비행단이 지킨다!



제11전투비행단(이하 ‘11전비’)은 3월 20일 ‘핵안보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구국제공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민·관·군 합동 대테러 훈련을 진행했다.

대구공항 테러대응 책임부대인 11전비는 지난 1월부터 대테러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가운데, 이번에는 한국공항공사, 소

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련요원 100여 명이 참여해 인질극, 폭발물, 화재 등 동시다발적 테러발생에 대비한 종합훈련을 전개했다.

항공고, 대통령이 친수한 마이스터고 현판식 가져
대통령으로부터 인정받은 항공과학고!



항공과학고등학교는 3월 9일, 마이스터고 개교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가졌다. 이 현판은 지난 5일, 한국 바이오마이스터고에서 개최된 ‘제2회 마이스터고 합동개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친수한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공군 항공기를 정비하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입학한 인재들이 있다.”고 항공과학고등학교를 언급하며 “여러분들이 21세기의 기술 강국 코리아의 주역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합동개교식에 참가해 대통령으로부터 현판을 받은 항공과학고 신입생 김광훈 군은 “항공과학고 입학이라는 영예에 더해 대통령님과 약속까지 하는 영광을 얻어 너무나 기쁘다.”며, “대통령께서 ‘21세기 기술 강국 코리아의 주역이 되어라.’라고 해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고, 앞으로 3년간 열심히 배우고 익혀 항공분야 최정예 전문가, 조국 영공수호의 일익을 담당하는 기술 부사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군수물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장비복지개선과 군수품 불법유통 방지
제3훈련비행단, 전투복 재활용 위한 피복나눔터 설치

제3훈련비행단이 구형 전투복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피복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어 장병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피복판매소 내에 설치된 재활용 피복나눔터에서는 올해 초부터



간부들의 피복이 디지털 전투복으로 교체되면서 자율적으로 기증받은 구형 전투복을 필요로 하는 장병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는 전역 장병들만을 대상으로 피복을 수거해 교육훈련용으로 활용했으나, 피복나눔터에서는 상태가 양호한 간부들의 구형 전투복을 적극적으로 재활용

해 군수물자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군수품의 불법유통까지 차단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광학 前 공군참모총장, 제23대 공군전우회장 취임
“공군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전우회장이 되겠습니다.”

이광학 前 공군참모총장이 3월 27일, 제23대 공군전우회장에 취임했다. 이 회장은 공군사관학교 11기로 임관하여 제10전투비행단장, 공군본부 작전참모부장, 작전사령관 등 주요보직과 제24대 공군참모총장을 역임(1996년 3월 8일~1998년 3월 6일)했다. 퇴임 후에는 국방대학교 군사연구원과 제11대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으로 활약하며 국가안보와 군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신임 이 회장은 “전우회원의 단결, 현역과의 소통에 힘쓰면서 공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F-X 공군평가단 업무 개시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키는 차기 전투기는?”

차기 전투기 대상기종 평가를 담당하게 될 F-X 공군평가단이 지난 3월 19일 창설돼 차기전투기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사전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F-X 공군평가단은 정석환 소장을 단장으로 시험평가팀, 군 운용적합성평가팀, 방사청 기술협상지원팀, 운영실 등으로 구성됐다.

시험평가팀은 항공기 성능과 군수지원 능력에 대한 평가를 맡는다. 항공기 성능에 대해서는 F-15K·KF-16 교관급 조종사를 비롯해 제52시험평가전대 시험비행조종사와 기술사가 비행, 시뮬레이터, 기동성, 조종안전성, 레이더, 탑재장비 및 전자전 능력 등을 평가한다. 군수지원 분야에는 항공전자장비 및 SW, 정비 및 무장/탄약분야 등을, 군 운용적합성평가팀은 작전 효율성, 임무수행 효율성 평가를 비롯해 표준화 및 호환성 평가, 후속군수지원체계 및 보급지원 능력, SW 지원 평가 등을 담당하게 된다.

행복이 어디 멀리 있는 줄 아셨소?



20대 초반의 한 젊은이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주위에 펼쳐진 풍경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은 안중에 없을 정도로 그는 무척이나 다급해 보였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그를 막아서고 물었습니다. “이보게, 젊은이. 뭐가 그렇게 바쁘오?” 젊은이는 허겁지겁 대충 대답했습니다. “제 길을 가로막지 마세요. 저는 지금 행복을 찾는 중이거든요.” 그러더니 다시 앞만 보며 뛰어갔습니다.



순식간에 20년의 시간이 지나 젊은이는 나이 지긋한 중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처럼 여전히 길 한가운데를 열심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다가와 또다시 그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어이, 이보게. 뭐가 그렇게 바쁘신가? 그렇게 뛰다가 골병든다네. 천천히 쉬면서 주위도 좀 둘러보게나.”

그러자 그는 언짢다는 듯 말했습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저는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찾는다 해도 그 행복을 누리기에는 이미 많이 늦었는데 하루라도 빨리 찾아야 한단 말입니다.” 말을 걸었던 사람은 무안해져 아무 말도 못한 채 멀어지는 사람을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또다시 20년이 흘렀습니다. 중년의 어른은 이제 노안으로 앞이 침침하고 등도 구부정해진 노인이 되었습니다. 발 한 걸음 떼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도 그는 여전히 뛰어보겠다고 발 버둥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노인의 앞에 서서 그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노인 양반, 그동안 그토록 찾고 싶어 하던 행복은 찾으셨소? 설마 아직도 당신의 행복을 찾고 있소?” 대답을 하려던 노인은 자신에게 질문을 한 사람을 보더니 돌연 무언가를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길을 막아 세웠던 그 사람은 알고 보니 행복의 신(神)이었던 것입니다. 행복의 신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행복이 어디 멀리 있는 줄 아셨소? 당신이 젊었을 적에, 혹은 중년이었을 적에 달리는 것을 잠깐 멈추고 나와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이미 행복을 찾았을 것이요. 평생을 그렇게 고생하며 달렸는데도 보시오, 지금 당신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상상.꿈

제34회 공군참모총장배

SPACE CHALLENGE



본선대회 | 5월 19일(토) [예비 5월 26일] / 공군사관학교 접수 | 대회홈페이지[www.airforce.mil.kr/SCH]

예선대회 | 3월 31일(토) ~ 5월 5일(토) / 전국 15개 지역 공군부대 주최/주관 | 대한민국공군

후원 | 공군발전협회 교육과학기술부 대한민국항공회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모형항공협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소년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상진
제34회 공군참모총장배
Space Challenge 2012
공모전

응모 기간 3월 31일(토) ~ 5월 6일(일)

공모 주제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즐거운 항공 우주축제"

- 대회에 참가하는 모형항공기, 물로켓의 매력
- 예선대회의 즐거운 추억
- 기타 모형항공기와 대회 관련 이미지

공모 대상 공군을 사랑하는 모든 분

상품 아이패드, 디지털 카메라, HD캠코더 등

응모 방법 다음 두 가지를 photo@airforce.mil.kr 로 출품



- ①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 파일 (개인별 2작품까지)
2200 X 1500 pixel 이상, 크기 3MB 이상의 jpg파일(흑백가능)
- ② 사진별 설명을 기록한 출품신청서(대회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 자세한 사항은 Space Challenge 2012 대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

Culture

36.5

Hollywood English 존 카터: 바숨 전쟁의 서막

인생은 아름다워 비밀의 화원 속에 숨겨진 비밀,
<마술피리>

Art in Everyday 영혼을 위한 처방전

Air-Supply 연애하는 왕 보셨나요?

Preview 4월의 문화행사



존 카터: 바숨 전쟁의 서막



<타잔> 작가 에드거 라이스 버로스(Edgar Rice Burroughs)의 대작

미국 작가 에드거 라이스 버로스(Edgar Rice Burroughs)가 <타잔 Tarzan> 시리즈의 첫 권을 낸 때는 1912년입니다. 저자는 같은 해에 또 하나의 시리즈 집필에 착수했는데, 바로 SF 액션 '바숨(Barsoom) 시리즈'입니다. 바숨은 화성인들이 자신들의 행성을 가리키는 언어입니다. 이 대목이 우리를 충분히 놀라게 하지요. 인간이 유체이동 방식으로 지구와 화성을 오간다는 설정은 충격적일만큼 당대의 시대를 앞선 상상이며, 특히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상상력을 펼쳤다는 점은 경이로움까지 자아내게 하지요.

일설에 따르면, 에드거 라이스 버로스는 시리즈를 시작할 때 노먼 빈

(Norman Bean)이라는 가명을 썼다고 합니다. 독자들이 '아니, 무슨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다 있느냐' 하는 반응을 쏟아낼까봐 지레 겁을 먹었고, 그런 반응이 나오면 결과적으로 대중들로부터 큰 창피를 당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하긴, 그가 대중을 열광케 한 <타잔> 시리즈의 창조자이니까요. 과연 작품이 공개된 뒤의 반응은? <타잔> 시리즈 못지않은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하는군요.

픽사 출신 감독과 월트디즈니의 합작품

SF 애독자들과 관객에겐 무척 반갑고 기쁘게도 총 11권의 이야기 중 첫 권인 <화성의 프린세스 A Princess of Mars>가 영화로 탄생했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존 카터: 바숨 전쟁의 서막〉입니다. 그런데 영화가 완성되기까지 물망에 올랐던 감독이 중도에 하차하거나, 제작사가 바뀌는 등 적잖은 시련이 있었나 봅니다. 혹시 영화 〈씬 시티 Sin City〉를 기억하시는지요? 그래픽 노블(graphic novel), 즉 만화 형태로 된 소설의 대가인 프랭크 밀러의 원작을 각색해 로버트 로드리구에즈가 감독한 작품이지요. 참 딱하게도, 이 영화가 흥행에서도 성공했더라면 ‘존 카터’ 프로젝트의 연출 기회는 그에게 돌아갔을 텐데 결과는 그렇지 못하였나 봅니다. 로버트는 결국 〈씬 시티〉의 제작사와 갈등을 겪고는 프로젝트에서 손과 발을 다 뺐다는 게 속사정입니다. 오랜 세월 제작을 탐냈던 파라마운트 영화사마저 포기한 뒤엔 월트디즈니가 가세했고, 앤드류 스탠튼이 감독으로 낙점됐습니다.

앤드류 스탠튼은 스티브 잡스가 세운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명성을 떨친 감독입니다. 픽사가 만든 다수의 영화에 스토리 작가 및 시나리오 작가로서의 이름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흥행 대작인 〈니모를 찾아서〉와 〈월 E〉를 감독한 명장 중의 명장이지요. 이들 두 작품으로 아카데미 애니메이션 작품상을 거머쥔 그가 ‘바숨 시리즈’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존 카터: 바숨 전쟁의 서막〉을 감독했다는 사실은 그에게도 이만저만 큰 영광이 아닐 수 없겠지요. 더군다나 이 작품은 그에게 실사극영화 데뷔작이니까요. 그렇다면 캐릭터와 스토리라인으로 치자면 〈아바타〉와 〈스타워즈〉의 아버지뻘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 영화에 들어간 제작비는 얼마일까요? 놀랄 준비되셨죠?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의 평균 제작비의 두 배나 되는 2억 5천만 달러(약 2,800억 원)입니다.

화성에서 발견된 미국 독립전쟁 장교

영화는 ‘Lost in Our World. Found in Another’ 라는 홍보문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사라진 누군가가 다른 행성에서 발견된다’ 는 뜻이지요. 이 ‘누군가’ 가 바로 존 카터입니다. 미국 독립전쟁 때 탈영한 남군 장교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탈영한 걸까요? 전쟁 때 아내와 아이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나락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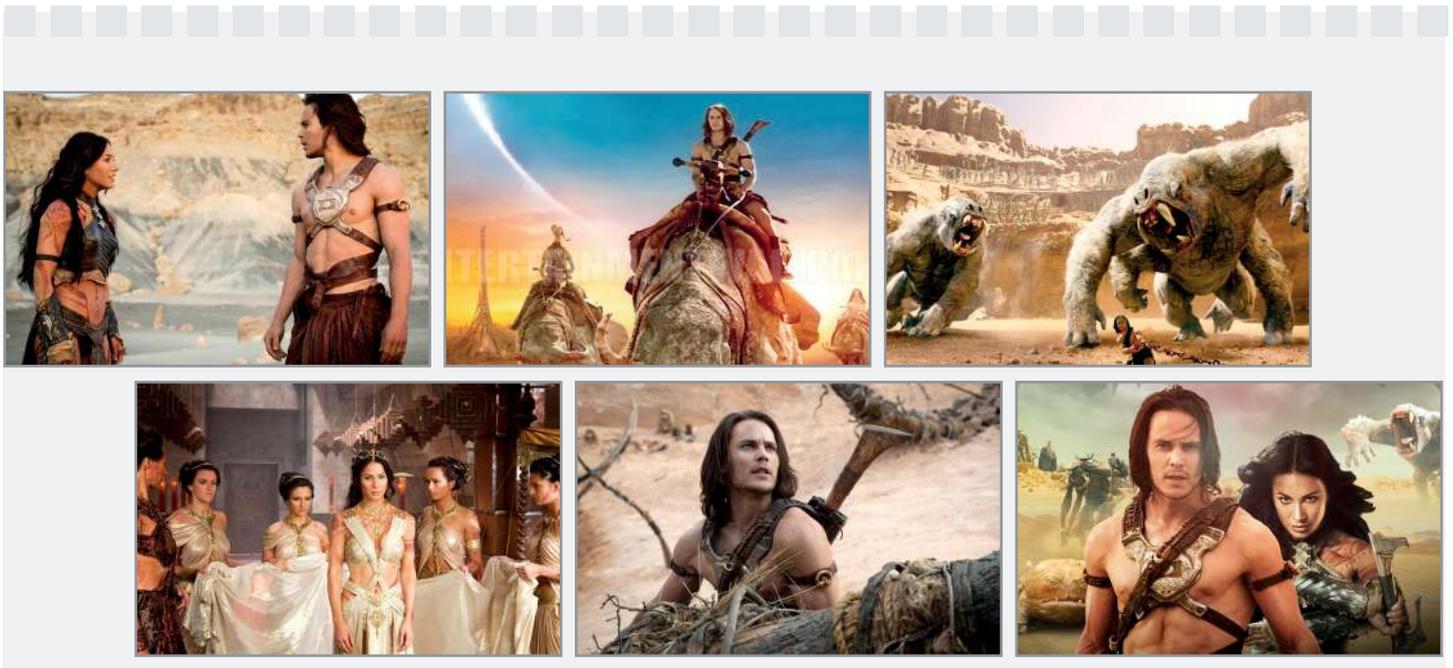
떨어질 뻔 했던 존 카터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건 그가 사막에서 금맥을 발견한 순간인데요, 때마침 추격해온 인디언들을 피해 동굴에 피신했던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다른 행성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존 카터가 바숨, 즉 화성에서 처음 만나는 외계 종족은 타르크 종족입니다. 그들은 다리는 두 개인데 팔은 네 개입니다. 그들의 초록색 덩치는 존 카터와 비교가 안될 만큼 큼니다. 그들은 존 카터를 전리품으로 체포한 뒤 검투사로 부려먹는데요,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거대한 덩치의 괴물들을 추풍낙엽처럼 제압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중력의 차이 때문에 존 카터가 월등한 파괴력을 얻게 됐을 뿐만 아니라 공중에서 방방, 붕붕 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타르크 종족은 존 카터를 추앙하여 전투에 내세웁니다. 과연 존 카터는 그들의 요구에 응할까요?

스티브 잡스에게 바치는 영화, 대장정의 서막

타르크 종족의 적은 붉은색 피부의 화성인 종족입니다. 그들은 헬리움 종족과 조단가 종족인데요, 존 카터는 그들에게 맞서 싸우기를 거부합니다. 이미 남북전쟁 때 아내와 아이를 잃는 큰 아픔을 겪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의 의지를 꺾어 놓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헬리움 종족의 공주인 데자 토리스가 조단가 종족에게 인질로 잡혀버렸고, 존 카터가 그녀의 매력에 끌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존 카터는 화성의 공주 데자 토리스를 구출해낼 수 있을까요? 구출해낸다면 시리즈 2편에서 둘은 어떤 관계가 될까요? 그들에게 또 어떤 시련이 닥치게 되는 걸까요? 서막에 이은 시리즈의 파란만장한 대장정이 벌써부터 기대되는군요.

〈존 카터: 바숨 전쟁의 서막〉에는 뜻 깊은 자막이 인쇄돼 있습니다. IT 분야의 세계적 창조 경영인으로 칭송받았던 스티브 잡스와 관련된 자막인데요, 픽사 출신답게 앤드류 스탠튼은 영화의 끝부분에 다음과 같은 추모사로 예를 갖추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준 스티브 잡스에게 이 영화를 바칩니다.’ **AF**





비밀의 화원 속에
숨겨진 비밀,

<마술피리>



모차르트가 작곡한 오페라 <마술피리>는 모차르트가 세상을 떠나기 약 두 달 전에 초연된 걸작이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천재 작곡가가 자신의 생명이 다하고 있음을 느끼며 혼신의 힘을 다해 완성한 마지막 걸작 중 하나인 것이다. 생의 마지막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순간을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한 이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간절할지, 새삼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더구나 모차르트라는 천재 작곡가는 서른다섯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야 했으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는가.

모차르트는 이 <마술피리>를 모든 연령층을 위해 작곡했다. 오페라를 관람하는 어른들은 물론이고 어린 아이들도 이 오페라를 좋아하니, 모차르트의 음악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새삼 느끼게 된다.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기 어렵듯, 모든 사람을 위한 음악을 작곡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그것은 모차르트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순수하고 유쾌한 오페라 <마술피리>의 첫 인상은 어린이를 위한 음악이다.

아름다운 여인 '파미나'를 구하러 가는 '타미노'와 타미노의 시중을 드는 새잡이 '파파게노'의 대모험. 아슬아슬한 위기의 순간과 가슴을 울리는 감동, 그리고 재미있는 무대와 음악이 있는 이 오페라는 아이들을 위한 음악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화 같은 타미노의 모험 이야기. 그것은 그에게 닥쳐온 위험으로부터 시작된다.

나무가 우거진 숲속... 타미노는 숨 가쁘게 산을 내려옵니다. 타미노의 뒤에는 험상궂은 뱀이 뒤따르고 있었죠. 화살이 없어 공격을 할 수 없었던 타미노가 뱀에게 발뒤꿈치를 물리게 된 순간, 어디에선가 세 명의 여인이 나타나 위기에 빠진 타미노를 구해줍니다. 묘연히 나타난 이 세 여인은 정신을 잃은 타미노의 얼굴을 보며 흐뭇해하고 있죠. 이 잘생긴 청년 타미노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밤의 여왕'의 시녀였던 이 세 여인은 여왕에게 보고를 하러 떠나게 되고, 세 여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등장한 새잡이 '파파게노'는 언제나 그렇듯 수다스럽게 떠벌리고 있습니다. 타미노를 구한 사람은 바로 자신



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때 다시 등장한 세 여인. 그들은 거짓을 말한 파파게노에게 말할 수 없게 하는 벌을 주고는, 거짓말한 대가를 치르라고 합니다. 그녀들은 밤의 여왕을 대신해서 힘을 부여받은 여인이었죠. 그리고는 타미노에게 사진을 한 장 줍니다. 어여쁜 여인이 있는 사진을 받아든 타미노. 아니나 다를까, 그녀에게 한눈에 반하게 되죠. 그 어여쁜 여인은 바로 밤의 여왕의 딸, '파미나'였습니다. 밤의 여왕은 '자라스트로'에게 납치당한 자신의 딸 파미나를 구할 인물로 타미노를 점찍어 둔 것이었죠. 자신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타미노 역시 기꺼이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해서 밤의 여왕에게 '마술피리'를 선물 받은 타미노는 새잡이 파파게노와 함께 모험의 길에 오르는데요, 파파게노 역시 밤의 여왕에게 요술종을 선물 받고, 그렇게 해서 오페라는 긴장감을 더해갑니다.

모차르트의 걸작이 조금씩 어려워지는 건 바로 이 대목부터입니다. 파미나를 납치해간 자라스트로가 밤의 여왕이 말한 것 같은, 그런 나쁜 악당이 아니었던 거죠. 여기서부터 <마술피리>의 깊이가 더해지는데요. 사실상 현자 자라스트로는 합리적인 이성과 지혜, 자연을 섬기는 철학자였고, 그는 위험한 밤의 여왕으로부터 그녀의 딸을 보호하기 위해 파미나를 납치해간 것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악의도 없이, 정의를 구현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제 이 오페라를 관람하는 어른들은 생각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악당인 줄만 알았던 자라스트로가 사실은 현명한 철학자이며, 딸을 납치당한 밤의 여왕은 또 다른 의도를 숨기고 있는 인물이었던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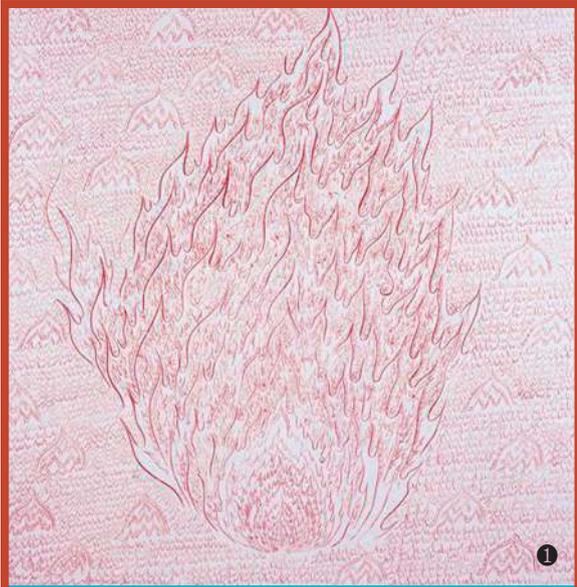
하지만 어떤 조건에서든 모험을 계속해야 하는 타미노는 혹독한 시험을 거쳐야 했습니다. 도전자 타미노는 '침묵'의 서약으로써 최선을 다해야 했죠. 무엇보다도 침묵을 통해 자신을 아는 것이 시험의 첫 관문이었던 겁니다. 침묵의 시련을 경험하는 타미노는 심지 굳은 도전자답게, 말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냅니다. 하지만 떠들어대기를 좋아하는 파파게노에게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죠.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는데다가 겁도 많은 파파게노는 계속해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진중한 타미노와 다르게, 파파게노에게는 그것이 어려운 과제였던 거죠. 하지만 관객들에게 사랑받는 캐릭터는 단연 파파게노입니다. 맛있는 음식, 달콤한 와인을 좋아하는 파파게노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단

한 가지 소원, 애인을 갖고 싶다고 애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타미노의 도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파파게노는 자신과 닮은 여인을 얻게 되죠. 자신과 이름도 모습도 비슷한 파파게나. 평범하고 소박한 파파게노에게는 파파게나가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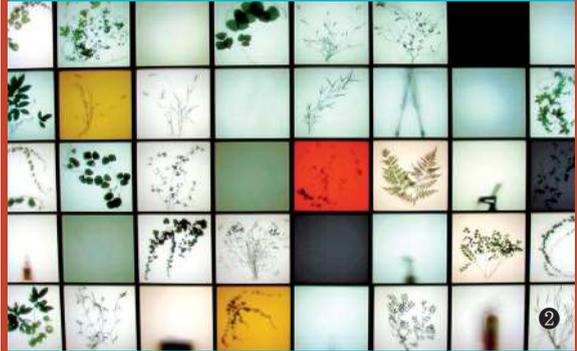
한편 현자 자라스트로의 가르침을 따르며 수행하고 있는 타미노는 파미나를 구하기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도전을 계속합니다. 침묵의 시련을 이겨낸 타미노는 아름다운 파미나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은 짧은 시간 동안 가장 감격스러운 행복을 맛보게 되는데요, 파파게노·파파게나 커플과 달랐던 이 두 사람은 더욱 강한 의지로 물의 시련과 불의 시련을 이겨내고, 결국 자라스트로에게 인정받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과정을 겪은 그들은 이성과 지혜와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결국에는 현자의 자격을 얻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타미노와 파미나는 더 성숙한 성인으로 사랑을 이루게 되고, 이들을 만나게 했던 밤의 여왕은 마침내 악한 여인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아이들을 위한 <마술피리>입니다. 하지만 어른들에게는 또 다른 물음 이 던져집니다. 모차르트가 이 작품에 자신의 사상을 숨겨 놓았기 때문인데요. 사실 모차르트는 <마술피리>에 '프리메이슨' 사상을 숨겨 놓았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모차르트가 살던 시대에는, 자유와 평등, 박애를 추구하던 사람들이 프리메이슨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고 하죠. 당시 학자, 예술가, 계몽 귀족 등 뜻있는 사람들이 프리메이슨 회원이었지만, 체제에 반하는 면이 있었던 이 단체는 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비밀결사단체로 남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음악으로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었던 모차르트는 자신이 추구하는 사상을 작품에 몰래 숨겨 놓았죠. 어린 아이들이 좋아할 음악으로 포장해 놓은 채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술피리>는 모든 연령층을 위한 음악이 되었는데요. 아이들에게는 재미있는 음악극으로, 어른들에게는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오페라로 기억되게 말입니다.

아마도 그것이 모차르트 오페라의 매력일 겁니다. 그 누구도 쉽게 찾지 못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그러면서도 그 모습을 쉽게 보여주지 않는 비밀의 화원처럼 말이지요. 볼 때마다 새로운 매력을 던져주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그 비밀의 한가운데에 <마술피리>가 있습니다. **AF**



영혼을 위한 처방전



- ① 이수경_불꽃_2006_한지 위의 경면주사
- ② 한기창_윈트겐의 정원_2006_x-선필름, LED, 혼합재료
- ③ Yoyoi Kusama_Infinity Mirrored Room-Love Forever_1994



한기창_윈트겐의 정원_2003_x-선필름, LED, 혼합재료

한 화가가 있다. 대학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그는 인생의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는 교통사고를 당했고, 일곱 차례가 넘는 큰 수술을 받았다. 전신 깁스를 한 채 병원 신세를 진 지 1년. 그는 자신이 작가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지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었다. 그때 그의 눈에 자신의 골절된 뼈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 엑스레이 필름이 들어왔다. 라이트 박스 위에 걸려 있는 엑스레이 필름이, 그에게 문득 그림처럼 다가온 것이다. 그날 이후 그는 정원사가 됐다. 부스러진 뼈 조각을 맞춰 꽃을 피우고, 줄기와 줄기를 잇고, 그 안으로 풀벌레를 날려 보내 '윈트겐의 정원'을 꾸며다. 창창한 젊음의 꿈이 좌절된 그 자리에서 그는 새로운 생명의 숨을 호흡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신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언어, 예술. 예술은 우리 내면을 돌보는 치유와 위로의 약소를 가졌다. 그림을 통해서 걸어오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한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고,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도 모르는 채 품고 있는 아픈 상처까지도 어루만질 수 있다. 앞서 소개한 '윈트겐의 정원'을 가꾸는 작가 한기창에게 역시 예술은 따스한 손을 내밀었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서 방황하던 그는 그 손을 맞잡고 다시 일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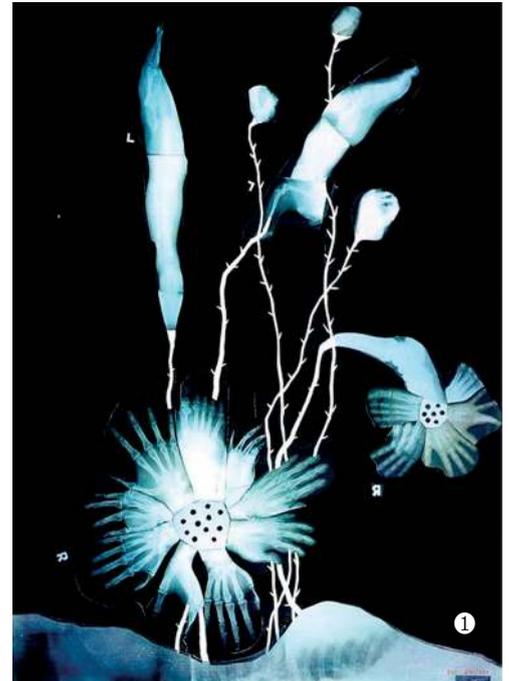
어스름한 전시장의 벽면에 걸린 그의 작업을 처음 보았을 때, 그것이 누군가의 뼈를 찍은 엑스레이 필름일 거란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 한 걸음, 두 걸음, 작품에 가까이 다가가는 동안 느껴지는 웬지 모를 떨림의 이유도 그래서 알 수 없었다. 한참, 작품을 들여다보다가, 혹시나 싶어 돌아본 작품 옆의 기록에서 '엑스레이 필름'이란 글자를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떨림의 이유를, 내가 얼마나 특별한 작품 앞에 서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아름답게만 여겨지던 활짝 핀 꽃과 메마른 가지들이 누군가의 고통이며 생명의 흔적이라는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된 것이다.

작가로서의 생명이 걸린 고통스런 시간들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기 위해, 더 좋은 작품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기 위해서 한기창 작가는 부스러진 뼈들이 만들어내는 그림자를 지워가며 엑스레이 필름 속으로 성큼성큼 발걸음을 돌었으리라. 그리하여 한때 자신이 작업을 통해 자기의 마음과 영혼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했던 자신의 작업들이 삶에 절망한 이들에게 희망의 시간을 선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으리라. **'바깥으로 뺄어내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것이 / 몸속에 있기 때문에 / 꽃은, 핀다.'** 던 안도현 시인의 시구처럼, 예술은 이렇듯 우리 몸속의 고통을 꽃으로 피어나게 하는 마법의 손이 되어 주기도 한다.

예술의 약손으로 영혼을 치유한 또 다른 작가로, '현대미술의 디바' 라고 불리는 일본 출신의 여성 작가 쿠사마 야요이를 빼놓을 수 없다. 1929년에 태어나 올해로 여든세 살이 됐지만 여전히 작업에서 멀어지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작품 세계를 '강박증의 예술'이라 부른다. 그는 가부장제가 뿌리 깊은 일본에서 태어났고, 어릴 적부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억압 아래서 자란데다, 사춘기 시절에 일어난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의 그늘 아래서 늘 강박증에 시달렸다. 열 살이 되던 해 그는 테이블보의 붉은 꽃무늬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꽃무늬의 잔상이 하늘과 창문, 방 안, 그리고 자신의 몸 위 에까지 퍼져가는 경험을 하게 됐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자신을 덮쳐오던 그 경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된 건, 그의 의식을 억압하던 나라 일본을 떠나 자유가 넘쳐 흐르는 예술의 도시 뉴욕에 도착하면서부터다. 그에게 자유의 낙원처럼 느껴지던 그곳에서 쿠사마 야요이는 비로소 강박에서 벗어나 자신을 맘껏 드러낼 수 있었다. 어린 시절 환각 상태에서 보았던 것들은, 이제는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물방울무늬가 됐고 그의 강박증의 경험에서 탄생한 이 물방울무늬는 번지듯이 캔버스를 채워 나가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자 그 물방울무늬는 비좁은 캔버스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사물 전체를 뒤덮어 관객들도 그 환각을 경험할 수 있게 했다. 예술은 어린 시절부터 병적으로 그를 괴롭혀온 환각과 강박증이라는 광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였고, 그는 창작을 통해 자기 자신과 화해를 했다. 물방울무늬에 이어 일정한 무늬를 무한히 반복하는 그의 작업 방식은 자신이 가진 환각 증세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서 치유의 길을 열어줬고, 이제 그는 스스로 정신병원에 들어가 살면서 그 안에 작업실을 마련해 작업을 할 만큼 세상의 그 어떤 편견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영혼이 됐다. 그는 자기 작품에 등장하는 물방울무늬가 프린트된 천으로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옷을 입은 채 자신의 작품들이 전시되는 공간에 등장하곤 하는데, 마치 동화 속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요정 할머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묶인 데 없는 자유로운 영혼, 진정한 상처를 극복한 영혼의 가벼움이 그의 결을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요즘 유행하는 미술치료의 효과를 따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많은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이 보여주는 예술이 가진 치유의 힘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경험을 관람객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작가도 있다. 쿠사마 야요이와 마찬가지로 비디오와 설치, 회화 등 다양한 매체로 작업을 하는 작가 이수경. 도자기 작업으로도 유명한 그가 예술이 가진 치유의 힘에 기대어 새로 시작한 회화 시리즈가 바로 그것이다. 그가 회화의 재료로 선택한 것은 한지와 경면주사. 경면주사는 부적을 그리는 데 쓰는 붉은 색의 안료다. 경면주사에는 실제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동의보감에도 약재로 등장할 정도다. 그가 이 경면주사를 선택해서 그림을 그리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예술이, 자신의 행위로 생겨난 예술작품이 그것을 바라보는 관람객들에게도 마치 부적처럼 치유와 위안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의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있는 좋지 못한 기억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모습을 드러내 속을 꿰뚫어 하는 나쁜 기억의 파편들을 모두 태워버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불꽃'을 그려냈고, 무언가 인간이라는 존재보다 더 큰 신을 향해 인간의 행복을 비는 마음으로 동남아시아나 인도의 불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많은 손들을 겹쳐 'Breeding Drawing'을 그려냈다. 그 손마다 들려 있는 백자 향아리들은 마치 우리 옛 여인들의 바람을 담은 정안수를 떠놓던 그릇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그는 예술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운을 불어넣어주기를, 현실과 이상의 접점에서 서로 화해하고 소통할 수 있기를, 사람들이 예술이라는 부적을 마음에 붙이고 안정된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안정될 수만 있다면, 현실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면, 그래서 조금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면, 거기에 예술가로서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더할 수 있다면 주술의 힘이라도 빌리고픈 것이다. **AF**



① 한기창_퀸트겐의 정원_2007_x-선필름, LED, 혼합재료
 ② Yoyoi Kusama_Pumpkin_1994_F.R.P
 ③ 한기창_퀸트겐의 정원_2008_x-선필름, LED, 혼합재료



연애하는 왕 보셨나요?

MBC <해를 품은 달>이 끝났다. 조선시대 가상의 왕과 무녀의 사랑을 그린 이 드라마는 첫 회부터 줄곧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하더니 결국 마지막회를 40% 이상의 시청률로 마무리했다. 지난해 방영된 수목 미니시리즈 중에 20% 시청률을 넘긴 작품도 극소수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례적인 인기다. 사실 <해를 품은 달>은 시작 전만 해도 드라마의 주인공인 김수현이 엄청난 톱스타는 아니었다는 점, 게다가 빠듯한 일정으로 제작돼 이른바 '육의 티'도 많이 발견되는 등 곳곳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MBC 파업으로 인해 마지막 주의 방송이 한 주 미뤄지기도 했다. 그만큼 <해를 품은 달>의 성공은 여러 모로 예상을 넘어선 결과였다.

그럼에도 <해를 품은 달>이 흥행한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선 아역 배우들의 열연이다. 제작사에서는 아역 배우들에게 큰 상을 줘야 하지 않을까 싶을 만큼, 이 드라마의 초반은 아직 중학생인 여진구와 김유정의 연기가 큰 호응을 얻었다. <해를 품은 달>이 죽은 줄 알았던, 사랑했던 여성이 기억을 잃은 채 되돌아오면서 생기는 멜로 드라마인 만큼, 어린 시절 두 사람의 사랑이 좋은 연기를 통해 설득력 있게 묘사되자 시청자들이 여기에 깊이 몰입했다. 성인 연기자들이 등장하고 나서 아역 배우들의 공백이





옥탑방 왕세자



더 킹 투하츠

레로 지난해 방영된 MBC <로열 패밀리>와 <옥망의 불꽃> 등은 모두 재벌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다뤄 화제가 됐다. 이제 판타지는 재벌 후계자가 아니라 왕을 통해 보여주는 셈이다. <해를 품은 달>이나 <옥탑방 왕세자>에는 모두 왕을 비롯해 잘 생긴 젊은 남자들이 출연하는데, 이는 재벌 2세를 주인공을 했던 KBS <꽃보다 남자>의 꽃미남 배우들을 일컬었던 'F4'와 비슷한 효과를 노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흥행이나 시대적 흐름과 별개로 굳이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는 왕을 끌어들이고서 또다른 신데렐라 판타지를 만들어내야 하는가는 생각해볼 문제다. 얼마 전 KBS에서는 4부작 미니시리즈로 <보통의 연애>를 방송했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 재벌이나 왕과는 거리가 먼, 우리와 비슷한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한 연애담이었다. 이 드라마는 완성도가 뛰어나다는 호평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했다. 배용준이 '윤사마'가 된 <겨울연가>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운명적인 연인의 이야기, 또는 부유하고 잘 생긴 남자와 평범한 여성이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끊임 없이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보통의 연애> 대신 '왕의 연애'를 만드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실장님'과 '본부장님'을 이어 왕까지, 시청자들이 비슷한 설정에 질릴 때마다 설정만 조금씩 바뀌어서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물론 판타지에 가까운 멜로드라마들이 가끔은 만들어지지만 이만큼 수많은 시청자들의 공통적인 흥행 코드로 작용하는 경우는 없다. 이런 성격의 작품들만큼이나 사람들의 평범한 사랑이나 삶을 다루는 작품도 많다. 한국만이 유독 이런 드라마들만을 만들고 히트시킨다. 그 사이 드라마의 평균 시청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시청자들은 드라마보다 오락 프로그램을 화제에 올린다. 물론 왕과 평범한 여성의 사랑 같은, 판타지 가득한 멜로드라마는 당분간 흥행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뻔한 드라마의 반복은 점점 더 시청자들을 식상하게 만든다. 좀 더 다양하고 현실적인 사랑이야기는 볼 수 없는 걸까. **AF**

느껴질 정도였다. 하지만 아역 때문만은 아니다. <해를 품은 달>에서 여자 주인공인 연우가 기억을 잃은 채 돌아와서 왕이 된 옛 연인과 다시 사랑에 빠지는 스토리는 과거 배용준이 주인공이었던 <겨울연가>의 이야기를 남남만 바꿔 놓은 것과 같다. 그만큼 현대극이라면 진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해를 품은 달>의 주인공은 조선시대라는 배경 그 자체다. 과거로 돌아가니, 비현실적인 사랑 이야기도 낭만적으로 다가온다. 특히 주인공이 재벌 2세나 3세가 아니라 왕이라는 점은 중요하다. <해를 품은 달>에서 왕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지만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할머니에 의해서 사랑하지 못하거나, 배다른 형제와 한 여자를 두고 사랑하는 스토리는 현대로 옮기면 아주 뻔한, 재벌이 주인공인 드라마다. 하지만 배경이 조선시대로 바뀌면서 이런 설정들이 진부하기보다 오히려 절절한 사랑 이야기로 다가선다. 주인공이 재벌 후계자가 아니라 왕이 되니 스토리의 규모도 커진다. <해를 품은 달>은 젊은 왕이 어떻게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서 백성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느냐를 중요하게 다루는데, 현대의 재벌 후계자가 주인공이라면 이런 스토리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해를 품은 달>에서 왕이 "왕이 이렇게 잘 생기기 쉬운 줄 알았더니."고 말하는 건 이 드라마가 노리는 바를 보여준다. 이 드라마에서 왕은 정치가라기보다 멋진 남자, 부와 권력을 모두 가진 젊은 남자인 셈이다. 이는 <해를 품은 달> 후속으로 방영되는 MBC <더 킹 투하츠>나 SBS <옥탑방 왕세자>도 마찬가지다. 두 작품에서는 가수 이승기와 인기 아이돌 그룹 JYJ의 박우천이 주인공이다. 또한 <더 킹 투하츠>는 우리나라가 지금도 왕위가 계승된다는 설정을, <옥탑방 왕세자>는 시간이동을 통해 현대로, 온 조선시대의 왕세자의 이야기를 다룬다. 왕이 등장하기는 하는데, 배경은 현대고 재벌 2세보다 더 스케일이 큰 왕이 등장하는 셈이다. 굳이 왕을 현대로 끌고 온 뒤, 그들에게 재벌 후계자 같은 연기를 시키는 것이다.

왕이 재벌 후계자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요즘 시대적 변화와 관계가 있다. 재벌들은 분명히 평범한 사람들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좀처럼 실제로 만나기 어렵다. 그만큼 재벌 2세와 평범한 여성이 빠지는 이야기는 현대판 신데렐라 스토리와 같았다. 하지만 요즘에는 재벌의 생활상이 언론과 인터넷에 의해 상당부분 알려진다. 그만큼 그들은 현실적인 존재다. 일



판소리에 울어본 적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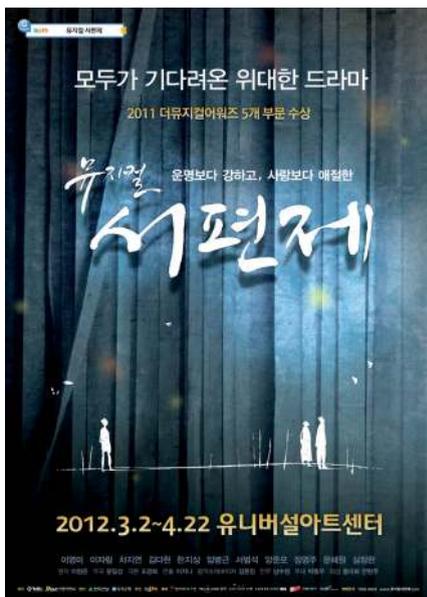
뮤지컬 <서편제>

뮤지컬 '서편제'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 속의 '한'을 이야기한다. 진정한 소리꾼을 꿈꾸는 송화, 자신만의 소리를 찾아 나서는 동호, 소리를 위해 딸의 눈을 멀게 하는 비정한 아버지 유봉이 주축이 돼 저마다의 '한'을 보여준다.

소리라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동호에 대한 사랑을 평생 간직하는 송화 역은 초연 당시 찬사를 받았던 소리꾼 이자람과 배우 차지연이 다시 맡았다. 이들이 보여주는 '한'을 표현하기 위해 뮤지컬 '서편제'는 여느 작품들과 달리 '판소리'가 등장한다. 우리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서양음악보다도 낯선 '판소리'를 들으며 관객들은 새로운 감동을 받을 것이다.

또 '판소리'와 함께 처음으로 뮤지컬에 함께한 스타 작곡가 윤일상이 만든 팝과 락,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뮤지컬 음악들은 감동을 더해준다. 가슴을 울리는 음악은 관객들에게도 2년 전 초연 당시 발매했던 OST는 전량 매진된 바 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시점과 함께 주인공들의 유량을 잘 표현하기 위해 도입된 무대세트와 영상 등은 서편제의 볼거리를 더해준다. 판소리가 아닌 뮤지컬로 다시 태어난 '젊은 한'이 관객을 뭉클하게 하기 충분하다.

- 기간 : 4월 22일까지
- 장소 : 서울 유니버설아트센터
- 가격 : VIP 9만 / R 7만 / S 5만 / A석 3만원
- 홈페이지 : <http://www.musicalseopyonje.com>



PREVIEW

더 달콤하게, 더 사랑스럽게, 더 짜릿하게!

연극 <옥탑방 고양이>

연극 '옥탑방 고양이'는 88만원세대의 아픔과 상처, 꿈에 대한 그들의 도전을 고스란히 담았다. 특히 솔직한 대사와 배우들의 섬세한 감정묘사가 관객들의 재관람을 이끌어내 1년여 만에 재관람객 만 명을 기록했다. 대학로 불황을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하는 연인, 설렘을 느끼고 싶은 연인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으며 다양한 관객층을 확보한 연극 '옥탑방 고양이'. 수년 전 인기 드라마로 안방 극장을 사로 잡았던 그 이야기가 눈 앞에서 생생하게 살아난다.

작가의 부푼 꿈을 안고 서울로 상경한 경상도 영동한 시골 여자 정은이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도시 남자 경민. 연극 '옥탑방 고양이'는 그들이 옥탑방으로 동시에 이사 와 벌어지는 좌충우돌 다듬어지지 않은 연인들의 이야기이다. 알고 보니 이중계약이었지만, 집주인까지 연락되지 않는다. 마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젊은 날의 축소판을 보는 듯하다. 옥탑방 하나를 두고 벌어지는 정은과 경민의 치열한 전투기. 4월 벚꽃보다 화려하고 개나리꽃보다 환한, 청춘들의 사랑 리그가 시작된다.

- 기간 : 12월 31일까지
- 장소 : 서울 대학로 틴틴홀, 강남 동양아트홀
- 가격 : 전석 3만원
- 홈페이지 : <http://club.cyworld.com/penthousecat>



Opin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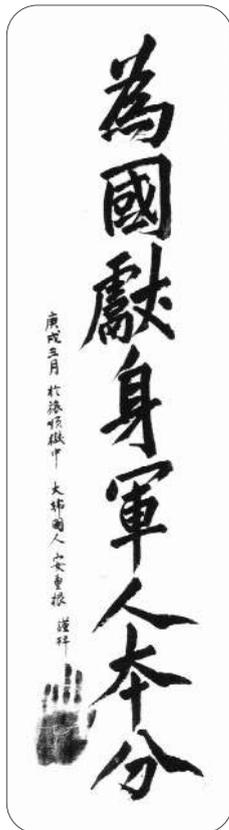
독자기고 나에게 주어진 위국헌신(爲國獻身)의 길
윗사람을 지혜롭게 모시는 방법

Health Diary 면역력을 높이는 영양요법

책마을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착각

나에게 주어진 위국헌신(爲國獻身)의 길

글. 대령 안덕신 | 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장



얼마 전, 우리 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 병사들과 함께 부대 근처에 있는 성신학교에 다녀왔다. 성신학교는 특수목적으로 설립되어 학생들을 교육하는 곳으로, 우리 전대는 성신학교에 매달 일정액의 성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봉사활동 과정 중 병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내가 갖고 있는 병사들의 편견을 없애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전대장이 참가하니 의무적으로 참석한 병사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예상외로 봉사활동 자체에 만족을 느끼고 자율적으로 참석한 인원이 많았다.

이처럼 신세대 병사들은 자기중심적일 것이라는 이미지는 전대장으로 취임한 지 3개월만에 편견임을 깨달았다. 우리 29전대의 대다수 병사들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장에서 직접 부하들과 생활하면서 느낄 수 있는 지휘관의 보람이 아닐까 싶다.

필자는 사관학교 생도시절부터 '위국헌신爲國獻身 군인본분軍人本分'을 마음 속에 담고 그렇게 행동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다. 29전대장으로 취임하기 전, 현재 나에게 주어진 위국헌신의 길은 무엇인가에 대해 진심으로 고민했고, 선배들의 조언도 구했었다. 29전대는 기성 전투조종사들이 최정예전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신전술을 개발하는 부대로, 최신전술을 적용한 실전적 비행과 다양한 실무장을 운용하는 중요한 부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위국헌신의 길은 항공작전과 비행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대장으로서 조종사들이 실전에서 사용가능한 전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훈련 및 교과과정을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지휘관으로서 부대원들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병사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군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돌려보내는 것도 위국헌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25년간 국가가 내게 전투조종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국가 안보의 밑거름을 만드는데 일조한다는 마음으로 맡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금은 내게 주어진 위국헌신의 길인 최정예조종사 양성을 위한 강한 훈련 및 최신의 전술개발, 또한 병사들의 건강한 군생활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헌신하겠다고 다짐한다. 이렇듯 각자의 위치에서 위국헌신을 고민하고 실천할 때, 우리나라의 튼튼한 안보를 담보할 수 있고, 국격향상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AF**

윗사람을 지혜롭게 모시는 방법

글. 김진영 | 학사62기, (현) 노동부 부천지청 김포고용센터 명예상담사

조직 생활에서 윗사람을 모시기는 참 어렵다. 특히나 사회초년생들은 그 어려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공군에서 C 대령님을 모시면서 조직 내에서의 생활에 관해 많은 것들을 체득했다. C 대령님! 내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 모신 두 분 중 한 분이다.

C 대령님과의 인연은 내가 공군에서 장거리 통신부대 행정장교로 근무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 부대는 대전 이남의 통신을 담당하는 장거리 통신 부대로서 파견부대가 많았다. 파견부대는 전국의 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었다. 자연경관은 좋았지만, 여름이면 태풍이 불거나, 겨울이면 눈이 많이 와서 군 통신을 운영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었다. 여름이면 너무 더워서 산에 오르기 힘들고, 초목이 자라 파견부대 주위를 감싸 화재위험이 높았다.

어느 가을 날 대구 앞산의 파견대 대장 P 준위가 내게 전화를 했다. 파견대 근처에 자생하는 싸리나무가 부대 주변을 감싸고 있어 벌목해야겠다고 했다. 순간 나는 싸리나무를 무작정 베어 버리기보다는 싸리빗자루를 만들면, 당시에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새마을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싸리빗자루를 만들자고 했다. 그리고 이를 대구시에 새마을 사업용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자칫하면 파견부대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벌목해 버릴 싸리나무를 대구시의 새아침을 쾌적하게 가꾸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면 이런 재활용은 세상에 다시없는 일이었다.

내가 대구시청에 새마을 사업용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니 새마을 담당자들은 너무 좋아했다. 수백 개의 싸리비를 대구시청에 배달하니 대구시장과 각 동의 새마을 담당들이 대환영을 했다. 대구시장은 고마워서 C 대령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우리 부대장은 비행단장에게 감사장을 받은 사실을 보고하고 기뻐서 그날 저녁에는 장교들을 불러서 맛있는 저녁을 사주셨다.

두 번째로 내가 최선을 다해 모신 분은 군에서 제대한 후, 건설회사에서 모신 L 회장님으로 이 분 역시 공군 출신이시다. 내가 건설회사에 입사해서 3개월 정도 인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장 비서실로 인사 발령이 났다. “김 군은 오늘부터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게” L 회장님이 웃었다. 그러나 비서직도 처음이고 어디서 비서직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어볼 곳도 없었다. 요즘이라면 비서직에 대한 교육과정도 있고, 비서 자격증 제도도 있지만, 당시는 비서는 비서직 관련 도서를 읽거나, 앞서가는 대기업 비서실의 직무수행 매뉴얼을 귀동냥 하는 수준이었다. 나는 시간 나는 대로 관련서적을 읽으면서 실무에 적용해 보았다.

비서실은 하루에도 수십 명의 방문객들이 오갔는데, 많은 분들이 “이 회사는 회장하고 비서가 많이 닮았어!”라고 말했다. 나는 어느새 회장님하고 모든 것이 닮아가고 있었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 회장님은 지금이나 그 시절이나, 장애자나 불우이웃들에게 관심이 많아서 사회공헌활동을 많이 하셨다. 언젠가 회장님 대신 내가 기금 전달 차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다. 목사님이 “O O 건설회사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하면서 교인들에게 말하고, 나를 단상으로 올라오라고 할 지경이었다.

모시는 분과 닮아가는 비서로서 신임을 받던 시절, 이런 일도 있었다. 당시 서울대학교에서 정부관료, 기업체 최고경영자, 정치인, 군 장성 등 사회 각층의 저명인사들을 모아 교육하는 최고경영자과정(AMP : Advanced Management Program)을 개설했다. 최고경영자과정 선발기준의 첫 번째가 나이 만 40대였다. 그러나 L 회장님은 만 39세. 내가 서류를 들고 서울대 경영대학교 사무실 여교수를 찾아 갔다. “우리 회장님은 현재 주민등록상 연세가 39세이지만, 예전에는 호적이 잘못돼서 사실은 40을 넘기셨다.”고 둘러댔다. “알았어요.” 여교수는 나를 바라보고 웃으면 신청서류를 받아 주었다. 그걸 계기로 그 여교수와 나는 긴밀하게 협조해 회장님 졸업논문 자료 수집도 열심히 도와드릴 수 있었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 내 나이 65세에 달했다. 예전 윗사람이신 두 분 중 한 분은 공군장교 모임에서 볼 수 있다. 또 한 분은 유명건설사 회장이시며, 현재 공군인터넷전우회(ROKAFIS) 회장으로 계신다. 이번에 L 회장님이 서울대학교 최고경영자 동창회에서 [서울대 AMP] 대상을 받으신다고 해서 내 일처럼 기쁘다. 부하는 윗사람에게 영광을 드리고 기뻐할 뿐이다. **AF**



면역력을 높이는 영양요법



몇해 전, 미국 남부평원의 호수 가장자리에 수천 마리의 배스 물고기가 떠밀려 온 기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으로 규명된 것은 바이러스.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물고기에 정상적으로 기생하는 바이러스였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영문일까요? 원인은 엉뚱하게도 다른 곳에서 밝혀졌습니다. 호수의 오염물질이 물고기들의 면역체계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 기생하는 바이러스가 치명적인 독이 된 것이지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1996년 덴마크와 독일 해변에 수백 마리의 바다표범 시체가 흘러왔습니다. 이 바다표범들을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한 바이러스에 의해 몰살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바다표범에게 어떠한 감염도 일으키지 않는데 말이지요. 역학조사결과, 라인강의 오염물질이 바다표범의 면역체계를 교란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오염물질은 우리 신체의 저항력을 약화시켜 감기에서부터 암까지 모든 병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특히 요즘처럼 일중기온차가 큰 봄 날씨에는 사람들의 면역력이 쉽게 떨어지기 마련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달은 면역력을 높이는 영양요법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다가오는 봄에는 부디 모든 공군장병

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양소와 면역체계의 관계

면역체계의 기능 저하에는 영양소 섭취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양소는 면역체가 체내에 침입한 세균들을 인지하고 파괴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요. 그 밖에 영양소 섭취의 유무에 따라 면역계의 질과 양은 서로 영향을 받는데, 이들은 인체의 면역기능에 악리학적인 변화를 야기합니다. 실제로 단백질, 아르기닌, 글루타민, 오메가-6, 오메가-3 지방, 철, 아연, 비타민 E, C, A는 모두 면역기능을 변조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면역계에 영향을 주는 영양소

비타민 A 결핍은 항원과 유사 분열물질에 대한 림프구의 반응을 감소시키며, 반면 베타카로틴 보충제는 면역반응을 자극합니다. 비타민 B군의 여러 비타민들은 적절한 항체반응 및 세포성 면역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노인들에게 비타민 B6 보충제를 하루 50mg씩 투여한 결과 면역기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



면역력 증강 생활수칙

- 충분한 수면 취하기
-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
- 하루 30분 이상 걷기
- 비타민이 풍부한 녹황색 채소 섭취하기

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C 결핍은 면역세포 탐식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그리고 비타민 E 결핍은 항원에 대한 항체반응을 감소시키고, 이는 셀레늄¹⁾ 결핍이 추가되면 더욱 감소됩니다. 철분 결핍은 면역기능을 둔화시키지만, 과잉은 오히려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철분은 너무 넘치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늘 조절을 해야 합니다.

아연은 면역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아연이 결핍된 사람인 경우 림프구의 기능이 심하게 억제되어 있으며, 림프조직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연이 결핍된 동물의 림프구들은 종양세포와 세균에 대한 살상능력과 탐식(貪食)능력을 급속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 밖에 자연살해 세포와 호중구²⁾의 활성화도 감소되는데, 이렇게 저하된 면역기능은 암 발생률을 높입니다.

셀레늄은 비타민 E와 함께 지질의 과잉산화로부터 숙주세포를 보호하는데, 셀레늄이 결핍된 동물은 체액성 면역반응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소화관 병변의 질환도 쉽게 발생합니다. 이들 세포는 이종세포를 죽이기 위해 사용된 독소에 숙주의 면역세포가 다치지 않도록 보호막을 입히는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비타민 E와 셀레늄이 충분하다면, 하나의 면역세포가 여러 침입자를 죽이고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결핍될 시에는 항체를 생산하는 세포수의 감소와 더불어 면역 글로블린이 감소합니다. 이 영양소는 단백질 대사에 관여하므로 림프구의 성장과 변형에 필수적입니다. 요오드는 다형핵 백혈구의 살균활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붕소는 오늘날 골다공증 예방을 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필수 미네랄로 인식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독성이 있는 미량 미네

랄에는 카드뮴, 비소, 납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면역계를 둔화시킵니다.

식이지방의 양과 질은 면역계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방산이 결핍되면 림프조직의 위축과 항체반응의 저하를 야기하며, 과다섭취하면 면역반응이 감소할 수 있어 적절한 지방섭취는 건강한 면역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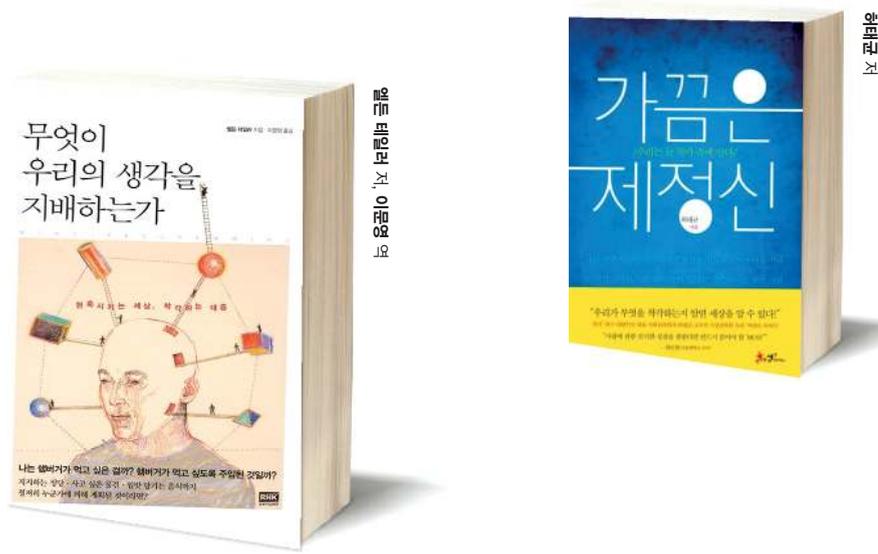
끝맺음

환절기 환경 같은 계절적 요인 및 불규칙한 생활 습관은 면역력을 약화시킵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영양섭취를 통해 면역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곧 있으면 운동하기 좋은 따뜻한 날도 다가오니, 모두들 밖에 나가 한 번 뛰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곧 있을 체력검정을 대비해서라도 말이죠.

Bonus! 작전사령부 항의전대에서는 건강한 봄철나기를 위한 '면역력' 증강캠페인 일환으로 병원을 내원하는 전장병 및 군무원들에게 비타민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많이 내원해주시길 바랍니다. **AF**



1) Selenium, 강력한 항산화력으로 세포막 손상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 신체조직의 노화와 변성을 막거나 속도를 지연시키는 무기질
2)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과립백혈구의 일종으로 신체 속으로 침입하는 박테리아나 진균 등을 살상하는 면역세포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착각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해마다 4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곤 하는 이 표현은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자 비평가였던 T. S. 엘리엇(Thomas Sterns Eliot ; 1888~1965)이 지은 「황무지」라는 시의 첫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4월을 맞이하면서 왠지 모르게 4월이 정말 잔인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4’라는 숫자의 한글 발음이 한자의 ‘死(죽을 사)’자와 같아서 이 시의 구절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필요한 고민과 괜한 착각들 속에 스스로를 가둘 때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엘튼 테일러 박사는 자신의 저서인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가」(엘튼 테일러 저, 이문영 역, 랜덤하우스코리아, 2012. 2.)를 통해 이른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4월이 잔인하다고 생각하거나 그 밖의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할 때에도 모두 자신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달리 말하면 각자의 생각은 자신의 고유한 부분이라서 어떠한 간섭이나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책에 따르면 우리는 넘쳐나는 미디어와 다양한 광고 등으로 인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제한된 사고를 하도록 세뇌당하고, 지배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저자는 이를 극복하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방법,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줍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와 허태균 교수도 「가끔은 제정신」(허태균 저, 쌤앤파커스, 2012. 2.)이라는 저서를 통해 늘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령, ‘나는 평균 이상’이라는 착각, ‘열심히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라’는 착각,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착각, ‘내가 나서야 일이 된다’는 착각, 심지어 ‘나는 착각하지 않는다’는 착각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착각들을 설명하면서 제목 그대로 우리는 늘 착각 속에 살고 있고 가끔 제정신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다양한 착각의 실체를 인문학, 심리학, 과학 등으로 분석하여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착각투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인간은 무슨 일이든 아주 쉽게 착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곤 하는데, 열린 마음으로 타인과 소통하고 객관적인 진실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책마을〉 가족 여러분! 이 두 권의 책을 읽다보면 이번 4월도 훌쩍 지나가겠지요. 4월이 끝나갈 무렵 여러분 각자의 4월은 과연 어떠한지 궁금해 집니다. 부디 이 두 권의 책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불필요한 고민과 괜한 착각들 속에서 자유로워짐으로써 앞서 소개했던 T. S. 엘리엇의 시와 같이 4월이 잔인한 달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되기를 기원합니다. **AF**

2012
April

Vol.406

P
O
S
T
C
A
R
D



월간 「공군」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월간 「공군」은 □□이다.

.....
.....

◎ 월간 「공군」 4월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글은?

.....
.....

◎ 월간 「공군」에서 다뤘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은?

.....
.....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

4월호
퀴즈 정답

1. _____

2. _____

3. _____

퀴즈 정답자에게는
월간 「공군」 편집실에서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월간 「공군」 4월호를 잘 읽고 문제를 풀어 독자퀴즈 엽서 뒷면에 답해주세요.

정답엽서 마감일 : 4월 30일까지

1. 냉전 시기, 구 소련의 베를린 봉쇄작전에 대해 미군이 펼친 작전은 무엇인가?
2. <존 카터> <타잔> 시리즈를 쓴 미국의 유명 작가의 이름은 무엇인가?
3. 모차르트의 3대 걸작으로 손꼽히는 오페라로 모차르트가 모든 연령층을 위해 작곡한 이 오페라는?

2월호 독자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1. 휴 트렌차드 2. 스피노프 3. 아에네아스
퀴즈 당첨자 서울 강남구 김순애 ● 경기 화성시 김민성 ● 충남 서산시 도경환
전남 순천시 서정란 ● 전북 전주시 손정환 ● 경남 밀양시 송나영

<월간 「공군」 독자들을 필자로 모십니다>

보내실 곳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309 정훈공보실 문화홍보과
월간 「공군」 담당 (우편번호 321-929)

이메일 heyclickman@gmail.com(인터넷)
ipod4you@af.mil(인트라넷)

전화번호 02-506-6943 / 042-552-6943

